

윤석열 대통령, 장성들에게 수치 수여하며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 유지 주문

윤석열 대통령, 장성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명수 신임 합참의장 후보자, 박안수 신임 육군 참모총장, 양용모 신임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신임 공군참모총장, 손식 신임 지상작전사령관, 강신철 신임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고창준 신임 육군 2작전사령관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군인들이 장군에 임명 될 때 수여 받는 검으로 호국·통일·변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수치에는 삼정검을 부여받은 이의 보직과 계급, 이름 그리고 대통령 이름이 새겨져 있다.

대통령은 군 수뇌부 임명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사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달아주며 국가를 위해 더욱 헌신할 장군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당부하며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 유지를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장병 사기·복지 문제는 정부의 일관된 중점과제임을 강조하며, 특히 초급간부 및 부사관의 복무여건 개선에 보다 전향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들의 노고에 합당한 경제적 보상 확대, 주거환경 개선과 인사관리제도 개선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전방위적인 조치들을 언급하고, 군 수뇌부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초급간부 및 부사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부단한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복무 여건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챙길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 군을 무한히 신뢰하고 우리 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격려하며 환담을 마무리했다.

오늘 행사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최병욱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최광수/기자

경북도,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착~착 추진!

제2차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통과 및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 협약 완료

경북도는 지난 23일 국토부 등 8개 부처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 시범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이 제2차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10월 31일에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 협약도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과하면서 다부처 사업으로 진행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게 됐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전인 10월 16일에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8개 부처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가 신규로 참여함으로써 내년 공모부터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관련 사업을 추가할 수 있어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의 효과가 한층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6월

공모에 7개 도에서 7개 사업이 선정됐고, 경북도에서는 청도군의 지역활력타운 사업인 '청(춘)려(유) 도원(DO-ONE)'이 선정됐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인구 감소와 산업 축소 등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에 수도권의 은퇴자와 청년층의 이주를 유도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인프라 및 생활서비스가 갖춰진 타운을 조성해 소멸 위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다.

내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계획은 2024년 1월에 공모에 착수하여 3~4월에 접수·평가, 5월에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2023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선정된 청도군 사업이 내년에 착수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행정 절차를 착실히 추진 할 계획이며, 2024년 공모에 도내 많은 시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기도 김동연, 미국소비자기술회(CTA) 회장 만나 "CES 통해 스타트업에 기회주고 싶어"

26일 CES 주관사 미국소비자기술회(CTA) 게리 샤피로 회장과 만나 경기도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을 소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6일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미국소비자기술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게리 샤피로(Gary Shapiro) 회장과 만나 CES를 통해 기업활동 지원과 국내 스타트업 소개, 기

후변화 대응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CTA는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1,300여 개의 글로벌 기업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는 소비자 기술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다. 매년 1월 미

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자제품 전시회 CES 주관사이기도 하다. 게리 샤피로 회장은 내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2024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비자전자제품전시회(CES)의 홍보를 위해 방한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전략과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기 RE100'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 과제를 소개했다.

김 지사는 "CES와 같은 행사를 통해서 경기도와 한국에 경제적 역동성을 불러일으키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이라며 "(CES에서) 공공기관과 대기업 간 폭넓은 파트너십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싶고, 경기도 스타트업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게리 샤피로 회장은 "CES는 UN과 깨끗한 공기와 물, 기술안보 등 7대 안보과제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김 지사에게 CES에서 정부, 기업대표들과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CES에는 정보기술(IT)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과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새싹기업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174여 개국 2,400여 개사, 12만 명이 참석했고 한국은 550개 사가 참여해 최고혁신상을 12개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CES는 첨단 전자·정보기술(IT) 제품 전시 뿐 아니라, 기업 회장이나 정부 관계자의 연설을 통해 신기술과 혁신으로 변화된 미래모습을 선보이고 코로나19, 식량위기 등 전지구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전남도, 세계 자연유산 '갯벌'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전남 갯벌' 비전 실행위해

전남도는 전남 갯벌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한 '전남도 갯벌 보전·관리 종합계획(2025~2029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전남 갯벌'이라는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4개 분야 29개 사업 총사업비 9천228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4개 분야는 갯벌 보전·관리 체계 구축,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체계 구축, 갯벌 생태관광 활성화, 갯벌 우수성 확보와 협력체계 구축이다.

분야별로 갯벌 보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보성·순천 여자만과 신안·무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갯벌생명관 건립, 해양생태 서비스 직불제 등 10개 사업에 5천840억 원을 들여 체계적 보전·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한다.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체계 구축을 위해 7개 시군 29개소에 1천660억 원 규모의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을 비롯해 5개 사업에 3천55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자연 퇴적화, 자연습지 생태 모델화 사업 등 갯벌 유형별 생태계 복

원을 추진해 어업의 지속성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갯벌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남 갯벌 세계유산축전, 탐조관광, 생태마을 지정 등 6개 사업에 245억 원을 들여 전남 갯벌의 해양생태적 가치와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갯벌 생태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갯벌 우수성 확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전남 갯벌 농·어업인 등재, 한국 갯벌도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8개 사업에 88억 원을 담아 전남 갯벌의 세계화 및 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갯벌 보전·관리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지역 내 2조 7천216억 원의 생산 효과와 약 1천74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2024년 한 해를 단위 사업별 행정절차와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 철저히 준비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본사업은 2025년부터 예산투자계획을 마련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순천시, 보성군, 신안군 등 15개 연안 시군과 협력해 지역별, 해역별 특성에 부

응한 갯벌 보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 갯벌을 세계적 갯벌 보전·관리의 모범이 되도록 관련기관의 협력 체계도 구축해 추진키로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도 갯벌 보전·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전남 갯벌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전남 갯벌의 가치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냄으로써 대한민국 갯벌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서울시, 만 65세 이상 장애인까지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확대

만65세 이상 장애인 및 만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까지 대상 확대

서울시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확대한다. 이에 11월부터는 만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만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장애인이 만65세가 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시켰으며, 만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이 없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만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만65세 미만 장애인까지 모두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관련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만65세가 됐다는 이유로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시키는 것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역할이 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2020년 12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22.5월)됨에 따라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매년 약 43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인성 질환 장애인과 만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지역사회 활동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11월부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대리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원은 일상생활과 사

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수급자)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급여가 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국가형급여)는 장애인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장애인(수급자)에게 최대 월 480시간(월 7,475천원)에서 최소 월 60시간(월 936천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형 급여 이외 서울시는 2007년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서울형 급여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최대 월 350시간(월 5백449천원)에서 최소 월 100시간(월 1백557천원)을 서울시 거주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정도과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과 고령의 장애인들은 돌봄의 손길이 누구보다 필요하지만 지원이 부족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지원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경상북도의회,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경영, 직무수행능력, 조직관리, 도덕성 등 철저한 검증 실시

경상북도의회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는 10월 23일 회의를 개최해 10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경북테크노파크 하인성 원장의 1년 재임인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시행된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11명과 의장추천 위원 3명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하인성 후보자에 대해 지난 3년여 간의 경영성과, 향후 직무수행계획, 도덕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심도 있게 검증했다.

청문위원들은 하 후보자에 대해 경북TP-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통합 관련 추진방향, 포항TP와의 협력 및 상생화 방안, 탄소중립에 대한 ESG 경영 전략, 종합청렴도 평가, 경북테크노파크 산하 특화센터 기능 및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테크노파크 부지 임대사용과 관련하여 영남대와의 불공정 계약이 지속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했으며, 기관장 평가는 S등급인 반면 기관 평가는 한 단계 하락한 A등

급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또한, 후보자 재직 기간 중 경북테크노파크의 수익계약 급증에 따른 영역계약 관련 지적에 대한 특단의 조치 및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및 기술 이전 등의 실적이 저조한 것을 질

타하며 경북의 주력산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주문했다.

하인성 후보자는 최종 발언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드리고 경북테크노파크가 기업과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하여 지원기관의 성격을 넘어서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조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업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경북테크노파크와 도의원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의견교환 등 소통이 부족하다"며, "의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경북테크노파크의 현황 파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하 후보자가 재임임을 하게 되면 경북 산업 발전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전남도의회, 중앙아시아 '최초' 타슈켄트주의회와 교류의향서 체결

경제·통상·문화·교육 등 실질적 교류분야 상호 협력기로... 한국어 교사 파견 등 논의

전라남도의회는 신북방 거점지역인 우즈베키스탄 지방의회와의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시장 개척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월 21일부터 6일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와 사마르칸트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서동욱 의장을 단장으로 한 이번 방문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타슈켄트주의회 미르자예프 조이르 주지사 겸 의회 의장의 초청으로 성사됐고, 중앙아시아 지역 지방의회와는 최초로 타슈켄트주의회와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고, 사마르칸트주의회와는 의회 운영 시스템을 교류할 것을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전라남도의회 대표단은 첫 번째 일정으로 타슈켄트주의회 미르자예프 의장 등과 회담을 갖고 경제, 통상, 문화, 교육, 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지역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는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미르자예프 의장은 한국어를 배워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를 원하는 우즈베키스탄 청년들이 많다고 말하며, 타슈켄트주가 체류비를 전액 지원하는 조건으로 전라남도에서 한국어 강사를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대표단은 일제시대에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 1세대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아리랑요양원을 방문하여 개인 요양실에서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찾아 위로를 전하고, 한국에서 준비해온 수면 양말을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특히 현지 한의사인 조옥현 교육위원장(목포2, 더불어민주당)은 고려인 어르신들에게 직접 침을 놓고 건강을 살펴 어르신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

이어 대표단은 1991년 전라남도의회가 개설 비용을 일부 지원한 타슈켄트 소재 세종학당을 방문하여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현지 학생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한국 문화에 많은 관심

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24일에는 사마르칸트주의회 토세프 파문 부의장 및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회 간 상호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세프 부의장은 전라남도의회 의정 지원인력 및 예산 등 의회 운영 시스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도 전라남도의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사마르칸트국립대 한국어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장을 면담하고 양 지역 대학생 교류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우즈베키스탄 한인회와의 만찬 간담회에서는 전남 김 수출할로 개척 등에 대해 강창석 회장 등과 논의했다.

대표단은 마지막 일정으로 타슈켄트시에 위치한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김희상 대사로 부터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경제, 문화 동향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외국 인력 고용 쿼터 등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김희상 대사는 양국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대사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욱 의장은 "10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전라남도 우즈베키스탄 주요 지역과의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시장 선점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특히 연간 5%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전라남도 기회 땅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다각적인 분야에서 전남도의회와 우즈베크 지방정부 및 의회와 교류 촉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계기로 김재철 도의원(보성1, 더불어민주당)을 대표로 하는 '우즈베키스탄 의원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우즈베키스탄 지방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종배/기자

부산시의회에서 민주주의를 몸으로 배우다

시의회 본회의장, 홍보관 등 의회 체험학습 기회 제공 및 모의의회 참여 등 민주적 의사진행과정 체험

부산광역시의회는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2일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 중학생 의회교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회교실은 앞서 5월에 운영한 중학생 의회교실, 8월 고등학생 의회교실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운영하는 청소년 의회교실로, 총 23개교 138명이 참가해 모의의회, 본회의장 견학 등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의 체험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의회는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03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한 이래 이를 차츰 확대하여 추진하여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회교실 참여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앞으로 더욱 많은 학생의 참여가 기대된다.

청소년 의회교실 세부 프로그램은 의정 홍보 및 2030엑스포 유치 기원 동영상 시청, 모의의회 진행, 개회식, 기념사진 촬영, 시설견학(홍보관, 본회의장), 2분자유발언, 깜짝퀴즈, 수료증 수여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지난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의 열의가 대단했다"라며 "이번에도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의회교실에 참여해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대구시의회 맑은물특위, 맑은물하이웨이 현안 점검



대구시의회 맑은물공급추진특별위원회는 10월 25일 오전 11시 대구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맑은물특위 위원들은 '맑은물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다산컨설팅 컨소시엄으로부터 검토 내용, 구체화된 추진방안 등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원규 맑은물특위 위원장(달성군2)은 "추진 중인 용역의 완료시기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안동시와 환경부를 만족시킬 최적의 방안 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준비로 대구시의 먹는 물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정모니터 간담회 및 현장방문 실시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2023년 환경복지위원회 의정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한 시민제보 위한 간편 프로세스 개발 △시각장애인 지원 시 동일 차종 배치 △울산박물관 야외 화장실 안심벨 설치 등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낀 고충이나 민원사항, 불합리한 제도 등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송수관로 복선화사업과 같이 다양한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진솔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영해 위원장은 "일상 속 작은 관심과 실천이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며 의정모니터단의 협조와

노고를 격려하면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을 역시 앞으로도 의정모니터과의 지속적 대화를 통해 '현장의 지혜'를 모은,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현장 중심'의 정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오후에는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울산광역시치매센터와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삼호동 치매안심마을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최근 3년간 울산에 등록된 치매환자 수의 증가와 진행단계의 심화 등 급속한 고령화에 비례해 늘어나는 치매 현황을 현장에서 면밀하게 파악하기 마련했다.

먼저, 환경복지위원들은 울산광역시치매센터를 방문하여 치매 관련 사업 및 위·수탁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VR 프로그램 등을 체험했다.

이후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는 치매조기검진 및 상담, 환자 등록 관리, 치매가족 지원서비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센터에서 운영 중인 치매안심마을 등 중 삼호동 와와마을로 이동하여 운영 현황 및 치매안심하우스 등을 살펴봤다.

이 위원장은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그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 치매 관련 예방·진단, 치료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안전망을 구축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일

부터 16일까지 1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황규진/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경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리너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재난 대응에 있어 마을공동체 역할과 제도개선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재난 대응에 있어 마을공동체의 역할과 제도개선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서, 재난 대응 과정에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며 재난 대응 민관 거버넌스 기구에 지역공동체 구성원(대표) 참여, 주민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관협력위원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회 정도의 회의 개최에 불과했고,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의 경우에 예산 집행액(집행률)은 2020년 166만원(34%), 2021년 140만

공공체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재난 대응 민관 거버넌스 기구와 관련된 조례가 개정되고 사업과 예산이 함께 동반되어야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태희 의원은 지역공동체 구성원(대표)의 참여를 위해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와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지역공동체 구성원(대표) 역량 강화, 네트워크 촉진 등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마을공동체에서 주도적으로 재난 예방, 대응, 회복이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의 근거를 담아야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는 11월 제372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끝.

김범상/기자

경기도·경기평택항만공사, 「2023년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선사포워드·신규항로 개설 총 3개 부문 접수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물동량 창출에 기여한 수출·입선사 및 포워드, 항로개설 선사를 대상으로 「2023년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서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기평택항만공사 물류마케팅팀에서 받을 예정이고, 전자메일 접수 후 PORT MIS 자료(선사부문)와 한국무역통계진흥원(포워드부문) 자료 검증을 통해 최종 11월 30일까지 선사, 포워드, 항로개설 부문 해당 신청서류 원본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평택항 물동량 증대 및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평택항을 물류거점 항만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경기도가 10억원을 평택항 이용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 대상은 평택항을 기항하는 선사 및 수출입 물량을 취급하는 포워딩 업체 중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평택항 컨테이너 수출입 실적 1,000TEU 이상 처리한 업체가 해당된다.

인센티브 지급항목은 선사, 포워드 부문 각각 규모비(총 물동량 대비 업체별 점유비율)와 증가분(업체별 전년 대비 105% 증가율)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신규항로 개설은 선사가 항로를 신·증설한 경우 지급한다.

11월 30일 접수 마감 후 12월 초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항로 신규개설 및 화물 증대 기여도에 따라 선사, 포워드에 연내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2023년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은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2023. 11. 01.(수) ~ 11. 30.(목)

2024년 1월 ~ 2024년 10월(연말) 지급(가)

신청처: 경기평택항만공사 물류마케팅팀 TEL: 031-686-6631 / Email: inco@wppg.or.kr

"GLOBAL 경기침체, 특히 중국 경제악화에 따른 평택항 물동량 감소 상황에서도 평택항이 변화의 중심, 젊은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더 많은 해운물류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전국 선사, 포워드, 해운물류 유관단체 총 4,000여개 업체에 홍보 DM을 발송하였으며, 이를 통해 평택항을 이용하는 신규업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약속 하였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 양식은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물류마케팅팀(031-686-063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도내 녹색제품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최민 의원, 경기도 녹색제품 법제화 다음 단계 도약해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3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내 녹색제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 회의에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박연희 소장, 백승준 전문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조은애 선임연구원, 경기도청 자원순환과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다.

박연희 소장은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녹색제품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 법제화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박 소장은 "녹색제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추진동기와 실무자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은애 선임연구원은 박 소장의 말에 공감을 표하며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에 대한 개정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조 연구원은 "경기

도의 특성상 일정 금액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는 부서에 별도의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하는 방법도 시도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민 의원은 "녹색제품 사용이 탄소중립과 무관해 보일 수 있으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기도의 인구와 경제 규모를 감안했을 때, 녹색제품 사용만 활성화해도 탄소중립 실현에 한 발짝 가까워질 것"이라며,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경기도가 법제화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청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민 의원은 지난 9월 7일 '광명시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 시범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경기도의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를 설명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녹색제품 활성화 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큰 관심을 지니고 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서민기초 교통수단(마을버스) 공공성 확보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공공성 확보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오 의원,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 제정 추진 ○ 서민기초 교통수단인 마을버스의 경영악화는 결국 경기도민의 불편 초래할 것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30일(월) 경기도의회 제1중회의실에서 시내버스와의 임금격차, 근무환경 등 경기도 마을버스 업계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민기

초 교통수단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의왕시 김성제 시장의 '의왕시 마을버스 운영사례'에 대한 특별강연 ▲경기도 마을버스 현안 사항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오준환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 약 3천여대 차량이 운행중인 마을버스는 우리 도민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도 내 시군별 상이한 마을버스 교통정책에 따른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도민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교통정책에서 소외되었던 마을버스의 표준화된 교통정책 수립 및 경기도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 향상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특별 강연에서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 시내·마을버스 현황 ▲의왕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업체 건의 사항 ▲마을버스에 대한 경기도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진 마을버스 현안 논의 자리에서 경기도마을버스운수사업조합 이호원 전무가 경기도 마을버스 기본현황, 마을버스 운전자 안전수당의 필요성,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요금 현실화, 마을버스 준공영제 용역 추진 및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등과 관련

한 사항을 보고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등 경기도 마을버스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끝으로 오준환 의원은 "마을버스의 임금격차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은 도민의 교통서비스 향상 및 안전운행 여건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마을버스 업계 인력 유출방지, 처우개선 등 마을버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조례안'을 대표발의'로 추진중에 있다"며 성원을 부탁하며 정책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광명1), 남중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 김중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 김상수 경기도교통국장 및 이윤기 경기도마을버스운수사업조합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사 인사로 자리를 빛냈으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범상/기자

강태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 회의 참석

"혁신추진단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것"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지난 30일 열린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 추진위원회 자문위원단 위촉장 수여식 및 제2차 회의에 참석했다.

제2차 회의 주요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선진화, ▲각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입법조사 요청 및 회답시스템 구축, ▲상임위원회 증설 세부 방안 논의, ▲의회 연구용역 및 의원 친선교류 체계화 방안, ▲3급 국장급 신설 등 조직개편 방향 보고 등이다.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의회 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추진단 추진위원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국 최대 광역 의회인 우리 경기

도의회가 먼저 자치분권의 확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튼튼한 주춧돌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추진단에서 논의된 안건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도출되어 경기도의 의회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은 지난 8월 양당 교섭단체가 '일하는 의회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동합의문을 채택하면서 제안된 것으로, 이후 9월 19일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 구성의 건'이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구성됐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 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식

일시 : 2023. 10. 30.(월) 14:00 장소 : 의정실



수원특례시가 '적극행정'을 적극행정한다

수원시민 불편 줄이고 삶의 변화 이끄는 적극행정 지원 제도 및 성과

생활 속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행정은 시민의 삶을 보다 원활하게 만든다.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은 예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해결이 요원해 보이던 해묵은 지역 갈등을 풀어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생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돕거나,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 등이 적극행정과 직결돼 있다. 수원시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는 수원시의 적극행정을 들여다본다.

◇수원시, 적극행정으로 40년 악취 민원을 풀다

수원시는 주민과 민간기업의 화합을 주도하며 악취 문제로 40여년간 지속된 갈등을 해결한 적극행정을 펼쳤다.

장안구 이목동 공업지역에 동원 F&B 수원공장 폐수처리시설이 들어선 것은 지난 1968년. 당시만 해도 인적이 드문 곳에 공장이 지어져 악취 문제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수원시의 도시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며 폐수처리장 소음과 악취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공장 인근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입주하며 악취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갈수록 심화됐다.

수원시는 지속적으로 악취 발생 원인을 점검했지만 단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제재를 할 수 없었다. 40년 이상 세월이 지나며 노후화된 폐수처리장은 대책 없이 미움을 받으며 이전 요구까지 빚발쳤다.

수원시는 관행적인 민원처리 대신 적극행정의 길을 택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수원시는 2019년부터 악취 측정 방법을 다양화하고,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해당 기업과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어 전향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어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와 저감조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행정처분과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주민과 기업의 신뢰를 얻었다. 결국 동원F&B측이 67억원 전액을 투자해 폐수처리장 시설개선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결과를 이뤘다.

2021년 5월 시작된 개선 공사는 지난 3월 말 완료됐다. 하루 2400t의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을 다양한 공법으로 고도화해 악취 발생을 줄였다. 관련 시설이 지중화돼 상부 공간에 조경 등으로 심미적 효과도 더해졌다. 오랜 기간 기업과 주민을 설득해 상호 이해를 끌어낸 악취 갈등을 풀어난 수원시의 적극행정은 올해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



▲수원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주도한 공직자들은 실적가점 또는 성과급 최고등급 중 하나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았다. 인센티브를 받은 공직자는 올해 총 24명이다.

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3월 준공을 앞두고 찾아가는 현장시찰실을 개설해 주민과 환경단체, 기업과 만나 지속적인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적극행정 끌어주는 적극행정위원회
독보적인 수원시의 적극행정을 앞장서 이끄는 역할은 수원시 적극행정 위원회가 맡고 있다. 위원회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고위 간부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시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가들이 위촉직 위원으로 활동하며 적극행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수원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반기별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 선발 심사 등을 주도한 것은 물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을 하는데도 힘을 보탠다.

특히 올해는 현안 심의 기능을 강화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확대했다. 법령 해석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심의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수원시 행정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수행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줬다.

여름철 물놀이 시설 운영시 공인 내방비용 CCTV를 활용한 것이 그 예다. 수원시는 매년 7~8월 한여름 무더위가 극심할 때 공인 내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CCTV 설치가 필요했다. 이미 설치된 CCTV가 있지만 범죄예방의 목적으로만 설치된 것이라 영상정보를 공동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따져야 했다. 이런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해 영동구 공인복지과에서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설치된 방법용 CCTV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적극행정으로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시민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지원한 셈이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는 영농활동의 어려움을 풀어나는 계기도 마련했다. 개울로 단절된 경작지에서 농

사를 짓던 한 시민이 각종 규제로 난관에 봉착한 사례다. 농경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행위 제한돼 농기계 통행을 위한 교량도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수원시 수질하천과는 농민의 안정적 생업활동을 위해서는 교량을 소득기반시설로 지원하고자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현장 여건에 맞는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주민의 생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유사한 지역의 농지에도 적극행정을 적용할 것을 권했다. 덕분에 농민이 보다 편안하게 농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센티브 및 면책제도로 적극행정 밀어주고

수원시는 적극행정을 밀어주는 방안들도 다수 운영한다.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적극행정으로 인해 곤란에 처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보호해 주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표창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간 2회 수원시 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는데, 예산심사와 온라인 선호도 투표, 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공정성도 높인다.

올해 상반기에는 포트홀 신고부터 처리까지 24시간 내에 완료해 포트홀 사고 발생률을 90%감소시킨 '포트홀 24시 기동대응반'이 최우수사례를 받았다. 이외에 ▲12개 공공기관 업무시스템과 서비스를 혁신한 수원시 공공기관 통합업무서비스를 구축 ▲주소 불편사항을 해결코자 도로명 상세주소를 직권부여하는 관리시스템 구축 ▲보호종료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주거정책 세어하우스 CON 등이 상반기 우수사례다.

하반기에는 수원기계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원기업새싹펀드'가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꼽혔다. 또 ▲시민을 위한 특별한 민원 해결사 '베테랑 공무원' ▲사전협상제도 시범 도입을 통한 도시계획규제 완화로 공공시설 환경을 개선 ▲일상의 제안으로 정책

을 만들 수 있는 '새빛톡톡' ▲여름철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며 CCTV를 공유해 예산 절감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해당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주도한 공직자들은 실적가점 또는 성과급 최고등급 중 하나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았다. 인센티브를 받은 공직자는 올해 총 24명이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도 시범 운영 중이다.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계획수립 ▲추진 과정 ▲성과창출 ▲적극행정 제도 활용·추진 ▲규제개선 과제 발굴 ▲제안 참여 등을 개인별로 평가해 점수에 따라 3~10만 원 상당 포상금을 준다.

지난 10월 20일에는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및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퇴직 공무원을 포함해 수원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고소나 고발 또는 민형사상 책임 소송을 당하면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직자가 적극행정 결과로 지게 될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의미다.

◇수원시 공공기관으로 적극행정 확산!

수원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적극행정 문화가 공공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기관별로 적극행정 책임관을 지정하고, 수원시와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상호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수원컨벤션센터, 수원도시재단,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수원FC, 수원문화재단 등 8개 협업기관들이 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는 정례적으로 책임관 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시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분위기가 확산하는 통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들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와 사전 컨설팅 등 수원시의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원시 적극행정 경진대회에 공공기관도 참여할 수 있게 제도를 확대하고 참여를 개방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기관을 포상했다. 또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표창과 가점 등 인센티브를 발굴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적극행정이 일상이 되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수원시와 공공기관의 꾸준한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화성시, 매송 다목적체육관 개관식 개최

화성시가 매송면 어천리 380-1번지에 매송 다목적체육관을 개관한다. 매송 다목적체육관은 연면적 1,105㎡, 지상 2층 규모로, 배드민턴·농구·배구 등의 종목을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과 탁외실, 샤워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개관식은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매송면 사회단체장,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내빈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매송 다목적체육관은 지난 6월 26일 임시 개관한 이후 임시 운영기간을 거쳐 30일 개관식 이후 오는 31일부터 정식 개관한다.

정식 개관에 따라 임시 운영기간 동안 시민에 무료로 개방됐던 것에서 이용요금이 유료로 전환되며, 시설 개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22시까지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매송면에 시민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며, "100만 도시 화성시에 걸맞은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에 건강과 활력을 채워줄 소중한 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성남시,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아카데미' 인원 100명으로 대폭 확대

교육 대상도 기존 미취업자에서 대학생과 직장 재직자까지 확대

성남시는 2024년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아카데미' 전문인력 양성 인원을 올해 30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확대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아카데미'는 성남시가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문교육과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교육과정이다. 성남시가 가천대, 성남산업진흥원, 한국팹리스산업협회, 반도체공학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는 내년부터 교육 인원 확대와 함께 교육 대상도 기존 대학 졸업자 중 미취업자에서 대학 재학생과 직장 재직자까지로 확대하고 야간반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팹리스 산업의 다양한 활용 분야를 고려해 교육과정을 ▲아날로그 ▲디지털 ▲임베디드 트랙별로 세분화해 각 트랙별 이론 및 전문 툴 사용 교육을 추진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9월 고양시 새울민원 처리기간 단축률 1.5% 포인트 상승

난지물재생센터 내 음식물처리시설 신설 반대 민원 다수 발생

9월 처리된 고양시 새울민원의 처리기간 단축률이 상승했다. 민원 접수일과 관계없이 9월에 처리된 새울민원의 처리기간 단축률 분석 결과, 단축률이 8월 49.4%에서 9월 50.9%로 1.5% 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시민들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덕은지구에 관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덕은지구 입주 전부터 입주예정자들은 과도하게 높은 분양가, 교통정체 우려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2022년 4월 입주 시작 시기를 기점으로 덕은지구 민원은 급격히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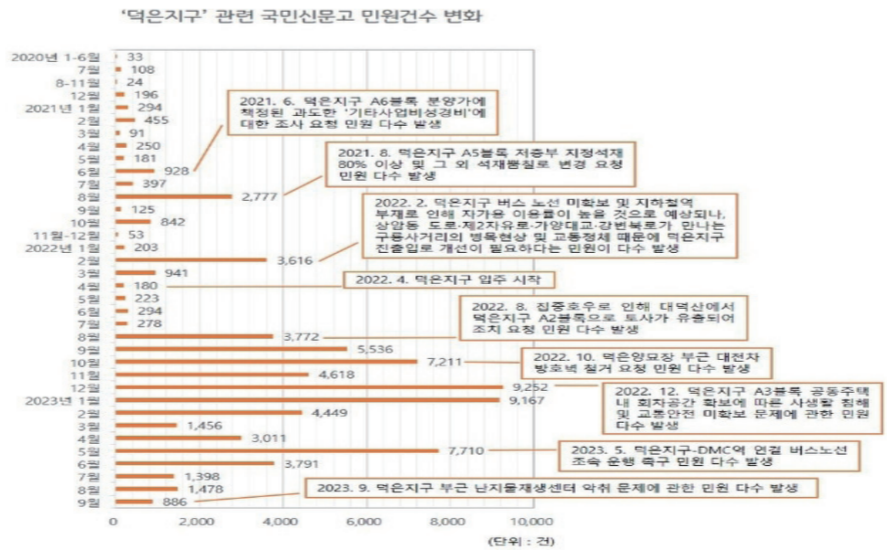
2022년 8월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대덕산에서 덕은지구 에이(A)2블록으로 토사가 유출되어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으며, 2023년 5월에는 덕은지구와 디엠씨(DMC)역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의 지속한 운영을 촉

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2023년 9월 국민신문고 민원 중 가장 뜨거운 반복·반발민원은 '난지물재생센터 내 음식물처리시설 신설 반대' 민원이다. 난지물재생센터는 현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지만, 주민기피시설로 주변 지역인 고양시에 위치하게 됐다.

난지물재생센터의 악취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따라 고양시는 서울시에 센터 이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센터를 서울시로 이전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며, 2023년 7월, 악취 등에 대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에 따르면, 수처리시설 복개공급화는 2028년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센터 내에 '음식폐기를 처리시설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덕은지구 시민들의 반발이 다시금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난지물재생센터 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서울시 행정구역 내로 이전 설치하도록 할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양시는 해당 시설

이 서울시의 5개 자치구(서대문구·마포구·영등포구·종로구·은평구)에서 발생한 음식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인 만큼, 고양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

한영기/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처인구 중앙동 공동주택 공사 현장 찾아 입주예정자들과 간담회 개최

대중교통과 도로망 확충,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등 의견 나눠

“내 집 마련의 꿈 실현을 눈앞에 둔 입주예정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도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나왔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30일 처인구 중앙동에 공사가 진행 중인 ‘용인드마크데시앙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 입주예정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9월 19일 ‘용인드마크데시앙’ 입주예정자와 만났을 때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 관계자와 아파트 시공사, 시행사, 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생각을 교환했다.

입주예정자들은 “현장을 직접 찾아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한 이상일 시장이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해 진정성을 느꼈다”며 “용인드마크데시앙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걱정과 요청 사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방향으로 답변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입주를 앞둔 주민들은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과 대중교통, 교육환경, 여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 중 학생들의 등하교 보행 안전과, 통학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의 확대는 주요 관심사였다.

입주예정자 A씨는 “아파트에서 용인초등학교까지 가는 길은 용인중앙시장을 지나야 하고, 차량 통행도 많다”며 “통학버스 지원과 용인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일방통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는 용인교육지원청과 함께 안심통학버스 운영을 지원 중이며, 맞춤형 대중교통의 확대와 도로보통화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의 혁신과 시장 상권 활성화에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는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 시설물과 방범용 폐쇄회로(CC)TV도 자연스럽게 확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인근의 안전과 여가시설 확충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입주예정자 B씨는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과 중앙시장 사이가 가파른 경사로 인해 겨울철 눈길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스마트제설함’ 설치 필요하다”며 “1300여세대가 입주하면 영유아 인구 증가도 예상돼 어린이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필요성도 높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인도에 쌓인 눈을 사람이 직접 쓸어야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지난해 겨울 보행로 제설기 도입을

지시해 큰 성과를 거뒀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제설함 설치에 시공사 입장에서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장에 나온 시공사 관계자들에게 설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시장의 질문을 받은 시공사 관계자들은 설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 밖에도 입주예정자들은 승강기 냉난방 장치 설치, 공원과 도서관 활용 방안, 대중교통 확대를 위해 용인특례시가 힘써 줄 것을 요청했고, 이 시장은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도록 시공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시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이상일 시장은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잘 들었고, ‘용인드마크데시앙’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지속해서 관심 갖겠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대중교통과 도로 확충은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중앙시장의 지역특화스마트도시재생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상/기자

안산시 상록구, 11월 한 달간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안산시 상록구는 11월 한달 간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 자동차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해 운행 외 용도로 사용 ▲도로에 계속 방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 한 경우 등이다. 차량의 외관 및 발견 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 상황 등을 종합해 해당 차량의 무단방치 여부를 판단한다.

상록구는 주민신고 접수 및 단속반 자체활동으로 무단방치 행위가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견인 후 폐차·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강제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용훈 상록구청장은 “무단방치차

집중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각심과 준법정신을 높이고,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 주변에 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적극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의정부시, 생활 밀접 전문 분야 '무료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



의정부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문제와 법적 도움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무료 민원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 분야는 행정, 법률, 노무, 건축 등 4개다. 전문 민원 상담위원 7명이 법률적인 조언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행정 분야 민원은 시청 일반민원실 무료상담실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이외 분야는 시 홈페이지에서 요일 및 시간을 확인 후 전화 또는 전문가 사무실 방문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갈수록 민원사무가 세분화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접근하기 힘든 분야에 기꺼이 봉사해 주시는 무료 상담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접근성 높은 고객 지향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안양시, ‘관악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제안 주민설명회 성료

석수동 주민 등 180여명 참석...공공주택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일한

안양시는 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악역 역세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설명회를 지난 27일 석수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제안 검토대상 지역인 만안구 석수동 259-44번지 일원의 주민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설명과 관련 정책 홍보가 이뤄졌다.

이번 후보지 제안 주민설명회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에게 후보지 제안내용을 공유하고, 해당 후보지 토지등소유자 전체의 50% 이상이 주민 참여의향서 접수 시 국

토교통부에 사업 후보지 검토를 제안함으로써 충분한 소통으로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2월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공공주택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오는 2024년 9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종 상향,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물보상(우선분양) 기준일을 2021년 6월 29일로 확정해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로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지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투기 세력을 원천 봉쇄한다는 정부 의지에 따라 입주 및 등기완료 이전에 매매할 경우 현금청산이 되는 것을 주의해달라”고 설명했다.

주민참여의향서 접수기간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한 달로, 안양시청 도시재생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우용/기자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시·군분야 '이천시 대상 수상'

이천시는 28일 경기도미래교육 파주 캠퍼스에서 개최된 제3회 경기도 평생학습대상(大賞) 시상식에서 시·군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생학습대상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문화공로자를 시상하는 상으로 올해 3회를 맞이했다. 우수 평생학습을 개발하고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거나 공헌한 개인, 단체, 시군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으로, 총 12명의 수상자(개인 4, 단체

4, 시군 4)를 선정했다. 특히 시·군 부문의 심사기준은 평생학습 사업의 특성화, 사업운영, 사업확대, 사업환류 등으로 경기도 평생학습 발전에 모범이 되는 사업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천시는 2004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2016년 UNESCO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2021년 장애인학습도시로 선정됐으며, 14개 읍면동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 공간·사람을 기반으로 평

생학습과 주민자치의 동반성장 모델 ‘잇다’를 정립하여 높이 평가 받았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2024년에는 이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 20주년 되는 해로 평생학습도시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알리고 평생학습도시의 선두주자로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더 열심히 이천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범상/기자

하남시, 하루에 완성하는 당뇨병 관리 '월데이 당뇨 교실' 운영

하남시가 당뇨병 관리 이론교육과 실습까지 하루 만에 윈스톱으로 전 과정 이수할 수 있는 ‘월데이 당뇨 교실’을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월데이 당뇨 교실’은 하남시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열리고 1월 개설 이후 총 83명이 참석했으며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월데이 당뇨 교실’은 ▲자가 관리에

필수요소인 자기 혈당 측정하기 ▲개인별 하루 필요 열량 알아보기 ▲밥 푸기 실습 ▲1교환단위별 식품(곡류군, 과일군) 계량해 보기 등의 심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적용이 어려운 당뇨병 환자들의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자기혈당의 중요성’과 ‘나의 하루 열량 알아보기’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질환관리와 영양관리 능

력을 향상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교육에 참석한 이○○(여, 66)씨는 “15년 된 당뇨병 환자임에도 올바른 당뇨병 관리 방법에 대해 알지 못했고 따로 교육받을 곳이 없어 아쉬웠다”며 “교육을 통해 정확한 혈당 측정법과 올바른 식단 관리를 배워 당뇨병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김범상/기자

상주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For more success with SANGJU

더 큰 성공을 위한 선택

전남도 한일해협연안 8개 시·도·현, 관광 활성화 등 양국 협력 약속

김영록 지사, '한일해협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제안

한국과 일본 8개 지역 단체장들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가 제안한 관광객 상호유치 등 양국 협력에 적극 노력한다는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 전라남도는 30일부터 이틀간 여수에서 제31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첫 날인 30일 8개 시도현지사는 변함없는 우호관계 속에서 상호발전을 위한 지역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할 것을 결의하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공동성명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 기여, 한일 각 시도현이 개최하는 문화경제 사업의 상호지지와 협력, 2024년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의 시가연 개최 등이다.

이에 앞서 열린 지사회의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전라도, 경상도, 한국 4개 시·도와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야마구치, 일본 4개 현, 실무진 70여 명이 참석해 양국 관광객 및 국제행사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지

역경제의 조속한 회복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한일해협연안 지역의 지속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 코로나 이후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각 시도 현지 지사의 발표가 진행됐다. 나가사키현은 '관광활성화 대책', 부산시는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 야마구치현은 '야마구치현의 관광진흥', 경상도는 '함께 그리는 한일해협관광의 미래'를 발표했다. 사가현은 '유일무이한 곳 사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가능한 제주 관광 재도약', 후쿠오카현은 '관광활성화 대책'을 소개했다.

전남도는 이날 회의에서 '세계로 대도약하는 관광수도 전라남도'를 주제로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 남해안 관광 벨트, 글로벌 관광 중심 대도약 등 전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자유토론에서 전남도는 2025 목포 국제남도미술산업박람회,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지를 당부했다.

공동 주제 발표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회의를 통해 공동성명문도 발표했다. 이날 지사회의에서 김영록 지사는 환영사에서 "올해는 한일 관계의 새 장을 쓴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이라며 "그 화해와 평화, 상생과 협력 정신을 이어받아 한일 8개 시도현이 제2의 김대중-오부치 시대를 열어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는 부산, 경남도, 제주도와 남해안 미래 비전을 공유하면서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앞으로 '한일해협 글로벌 해양관광벨트'로까지 확장해 한일 양국의 인적·물적·문화 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기세를 몰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세계 각국의 관광·문화 축전과 연계해 거대한 글로벌 축제의 장이 펼쳐질 전



남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일부측 간사인 핫토리 세이타로 후쿠오카현지사는 "한일 8개의 지자체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를 촉진, 양국 우호관계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며 "이번 회의의 테마인 관광 활성화는 코로나 이후 높아진 관광 수요에 대비하자 는 것으로, 8개 시도현이 지혜를 공유해 결실 있는 회의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31일에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구례 화엄사를 시찰할 예정이다.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는 지난 1992년 제주에서 제1회 회의의를 가진 이후 한국과 일본이 윤번제로 개최해오고 있다. 매년 실무회의, 준비회의를 각 1회 실시해 공동 교류사업 을 추진함으로써 한·일 지방자치단체 간 실질적인 교류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박종배/기자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 4만 명 다녀가며 성료

'2023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에 4만여 명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가을밤 '치유 콘서트'와 '오토 투어', '87남파랑길 걷기' 등 새롭게 추진한 프로그램들이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가을밤 치유 콘서트'는 오케스트라와 팝페라를 가미하고 젊은 층을 겨냥한 음악을 위주로 공연을 구성해 주민과 관광객들은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했다.

청정한 바다와 숲의 절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87남파랑길(정동리 구계동 일원) 걷기' 참가자들은 재방문을 의사를 나타낼 정도로 만족감을 나타냈다.

섬 권역에서 진행된 청산도의 은하수 투어와 해녀 포차, 보길도의 세연정 등불 축제, 생일도의 팽터어를 비롯해 완도수목원과 약산 해안치유의 숲의 프로그램에도 참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마술쇼와 버블쇼'는 매일 가족 단위 관람객이 늘어났으며, 'EDM 파티'는 남녀노소 모두 어우러지는 장이 되어 함께 스트레스를 풀어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 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단체에서 운영한 전복 판촉 행사에도 많은 손님이 찾아와 매출이 기대한 것 이상이어서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된 축제였다"면서 덧붙여 "기관·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축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각 지역에서 가을 축제를 개최하는 만큼 내년에는 섬, 자연환경 등 완도만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더 알차게 구성해 차별화를 두고 가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영율/기자



강진군, 전남생명과학교 '2024 실습장 지원사업'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광주·전남 농업계 高校 중 유일 선정

강진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4년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에 전남생명과학교(강진읍 소재)가 광주·전남 농업계 고등학교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은 실습 위주의 교육과 첨단농업 기술 교육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 예비 전문 농업인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이번 사업 선정으로 전남생명과학교고등학교는 총 5억 원을 지원받아 농업기계 현대화 및 농기계 교육환경을 개선해 최첨단 실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생명과학교는 첨단농업 기술 교육을 위한 시설과 장비 확보를 통해, 예비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 졸업 후 농업 분야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남생명과학교는 지난 2020년에 유리온실 개보수와 스마트팜 환경 제어 시스템을 구축했고, 2022년에는 한우사육 양돈사, 가금사 등에 ICT 스마트 융·복합시설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시설 확충으로, 최적의 농업 교육 환경을 조성해 농업의 미래와 함께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전남생명과학교의 첨단 농업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진군을 이끌어갈 예비 전문 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윤호/기자

남원시, '복합형공공도서관' 새로운 명칭 공모

소통과 배움, 열린 지식문화 공간으로서 선도적 역할 수행

남원시는 2024년 4월 준공 예정인 복합형 공공도서관의 새 명칭을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복합형공공도서관은 금동 343-8 일원, 연면적 2,163㎡(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진행 중이며, 남원시 대표도서관으로 지식·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고 휴식할 수 있는 개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이달 10월 31일부터 다음 달 11월 13일(18시)까지 남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내용은 △남원시 대표도서관의 상징성과 도서관 이미지를 표현하는 명칭, △도서관의 공식 명칭으로 적합한

며 부르기 쉽고 특색있는 명칭으로, 명칭에 '도서관'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남원시청 홈페이지 - 소통과 참여 - 시정 소식 -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된 명칭들은 상징성, 독창성, 적합성, 대중성의 4가지 심사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3건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는 오는 12월 15일(예정) 시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당선작에 대한 부상으로 최우수자(1명)에게는 50만원, 우수자(2명)에게는 각 2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남원시청 도서관운영팀로 문의하면 된다.

지양근 교육체육과장은 "소통과 배

움, 열린 지식문화 공간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남원시 복합형공공도서관의 새 명칭 공모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함평 관광브랜드 슬로건 공모전

23.10.30(화) ~ 11.30(수)

함평군

함평군, 함평 관광 슬로건 공모전 개최

11월 12일까지...함평 관광의 정체성·지향성·매력을 함축한 슬로건

공모전 주제는 함평 관광의 정체성과 지향성, 매력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슬로건으로 ▲군민이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가치, 바람, 미래 지향점을 담은 문구 ▲함평 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창의적·상징적 지속 가능한 문구를 작품 설명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참가 신청은 공모전 전문 온라인 플랫폼인 '생긱'과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함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슬로건 공모전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함평군 관광정책실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과 최우수상 각 1명, 우수상 4명을 선발해 함평군수상

과 함께 각각 100만원, 50만원, 1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참가상으로 80여 명에게 5천원 커피 쿠폰을 지급한다.

공모전 결과는 오는 11월 중 함평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되고 수상작으로 선정된 슬로건은 향후 함평 관광 브랜드 개발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만의 정체성과 관광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적 관광 홍보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이번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했다"며 "보다 참신하고 다양한 슬로건들이 접수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순천시, 여수·순천·광양 3市 시장, 정원에서 화합의 시간 가져

초청 만찬 통해 3개 시의 상생발전과 지속적인 협력 다짐

여수광 3개 시 시장이 정원에서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순천시는 지난 30일에 정기명 여수시장, 노관규 순천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3개 시 시장이 국가정원 내 가스스테이 실랑계에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입장권 사전 구매 등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준 여수시와 광양시에 대한 고마움에 보답하고 3개 시의 공동번영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노관규 순천시장의 초청으로 추진됐다.

이날 만찬에는 특별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등을 재료로 한 음식으로 준비해 수산물 소비 촉진에 앞장서

는 모습을 보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원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아낌없이 협력해주고 응원해 준 정기명 여수시장, 정인화 광양시장께 감사하다"라며, "여수·순천·광양은 경쟁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로서, 앞으로도 3개 시가 연대해 광양만권이 남해안벨트의 중심으로 주목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도자 한 사람이 도시를 바꿔 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노관규 순천시장의 열정과 추진력에 박수를 보낸다"라며, "순천의 정원은 여수와 광양의 정원도 된다"며

메가시티 개념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정원박람회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 탁월한 지도력으로 놀랍고도 어려운 일 해냈다"라며 진심어린 격려를 보내고 "3개 시가 서로 손잡고 협력하여 광양만권 전체가 번영과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화답했다.

한편, 3개 시 시장은 오늘처럼 특별한 만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앞으로의 광양만권 3개 도시의 행보가 기대된다.

이승춘/기자

'2023나주축제'에서 만나는 공익활동의 가치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2023 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 통합축제 현장에서 공익활동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20일부터 축제장인 영산강둔치체육공원 행정부스존에서 '공익홍보부스'를 29일까지 열을 간 운영한다.

특히 교육·환경·문화분야에서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익 체험 활동과 공연 등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축제 7일차인 26일까지 센터는 빛가람동 마을합창단 공연을 비롯해 공익활동가(교육문화) 활동 홍보, 방문객 설문 및 스탬프 이벤트, 아동·청소년

대상 환경 OX퀴즈, 친환경 캘리그라피 책갈피 만들기 등을 진행했다.

환경분야에선 축제 플로깅 행사인 '걸GO 줌GO 영산강 지키GO'를 매일 진행해 방문객이 수거해온 쓰레기를 자원봉사 시간과 함께 소정의 기념품으로 교환해주며 친환경·친자연 축제 진행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센터는 오는 27일부터 폐막일인 29일까지 부스에서 문화분과 및 마을공동체 활동 성과 전시전과 아동 방문객을 위한 슈링클스 종이 만들기, 양말목 공예 체험, 즉석 사진 인화 이벤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석순 공익활동활성화 팀장은 "단순 공익홍보·전시가 아닌 영산강 플



진도군,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

진도군이 최근 관내 진도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인구교육 전문기관인(사)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국외취강사를 초빙해 '인구와 미래 공존, 우리가 만들어 가는 새로운 시대'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군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일과 가정 양립 문화 확산,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 공직자, 군 장병,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2023년 진도군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지금까지 5회의 교육을 실

시해 900여 명이 인구교육을 수강했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가족친화적인 가치관 정립의 인식개선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인구절감 현상에 공감하고 지역소멸위기 극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신혼부부 결혼 장려금 지급 ▲난임 치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등 다양한 시책 추진과 인



김관영 전북도지사 - 한동훈 법무부장관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 체결

외국인근로자·유학생 등 비자발급·정착지원·생활개선·사회통합 등 상호협력



전북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외국인·이민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구축에 첫 번째 주자로 나서게 됐다.

전북도와 법무부는 30일 전북도청에서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새로운 외국인 이민정책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김관영 전라북도지사가 내년 초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

를 건의하는 과정에서 시작했다. 김 지사가 새로운 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 전북특별자치도를 활용하는 내용의 특례를 부처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에 공감했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 차원에서 전북에 협약 체결을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그동안 전북도는 법무부가 지역과 처음 추진한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에서 전국 최대 할당 인원(400명)을 확보한 후 대상자를 조기 모집한 성과를 거뒀고, 지자체 최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무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이민정책의 방향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을 받아 왔다.

협약식에서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지자체로서는 첫 업무협약을 맺게 돼 의미가 매우 크다"며 환영의 뜻을 전하고, "내년에 있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전북이 새로운 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도전의 기회를 부여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전라북도도는 인구감소의 위기 속에서도 농생명산업 등을 통해 '스마트 그린바이오 허브' 중심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으로, 계절근로·지역특화·숙련기능

인력(E-7-4) 등 외국인 활용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돼, 외국인·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 기능하기에 적합하다"고 화답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라북도와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외국인 유치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발급과 체류지원, 외국인 주민의 한국어 교육과 정보제공, 상담지원,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 및 연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사회통합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오늘의 협약을 계기로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 입·출입 및 체류 지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우수인재와 기술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함으로써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해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이번 협약의 의미에 대해 언급했다.

협약식 후 열린 차담에서도 김 지사와 한 장관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장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 유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앞으로 외국인·이민정책의 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정책 추진상황을 긴밀히 공유하는 등 소

통·협력해야 한다는 데에도 상호 공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위기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지역의 인구형태, 산업형태, 외국인 주민형태 등 지역의 여건에 맞는 새로운 이민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유학생과 지역특화 일자리를 연계한 지역특화비자사업은 기업과 외국인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고 기업의 재참여 의사가 크다"며 대상지역의 규모와 확대 시행을 한 장관에게 건의했고, 가족과 함께 장기체류가 가능한 지자체추천 숙련인력비자 전환량의 전북도 확대도 적극 건의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정책이 실현되고 국민의 일상이 펼쳐지는 현장이므로, 정부의 정책이 도움이 되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 앞서 완주군 삼례읍의 딸기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근로 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남출/기자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교육, 캠프 장소로 '인기'

행복한 치유 숲에서 교직원 직무 교육 진행

보성군은 제암산자연휴양림 내 치유센터에서 전국 교원 및 교육 전문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특수분야 직무연수 교육'이 6기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하반기 특수분야 직무연수 교육'은 전라남도 교육청 교육연수원 주관으로 총 180여 명의 교원생을 6기로 나눠 30여 명씩 1박 2일 동안 진행하며, 지난 28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자연환경 숲 교실'이란 주제로 하반기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은 분야별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환경 교육(탄소 중립과 농업), △목공예(나무의 도마버닝 디자인), △건강증진체험(산소방·맥반석방·황토방·녹차탕 체험), △나무와 새 이야기(자연명상 활동), △차(茶)향을 담다(차별 힐링 투어, 블랜딩 차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제1기 교육에 참여한 대전 모 고등학교 교사는 "숲 세상에서 편안한 교육으로 힐링과 충전의 유익한 교육이었다."라며 "기후 위기 문제에 당면한 우리 미래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생태 환경 교육에 더욱 힘써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상반기 연수 교육'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5기에 걸쳐 150여 명이 '차와 함께 떠나는 환경 교

실'이란 주제로 교육을 마쳤다.

보성군은 제암산자연휴양림과 치유센터 활용을 위한 교육 및 대학교 MT 신청자가 줄을 잇고 있으며 올해 102여 개 팀 9천6백여 명이 교육 및 캠프에 참여했다고 한다.

또한, 보성군의 직영 시설인 '치유센터'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웰니스 관광지 '힐링 명상' 분야에 선정됐으며,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된 제암산자연휴양림 내 자리하고 있어 산림욕과 자연치유에 최적화돼 있다.

최원영/기자



화순군, 전국 최초 '2023 세계 산림 치유대회' 성황리 개최

세계 10개국 참여, 해외전문가 시연 및 국제포럼 등으로 구성

산림치유는 산림의 건강기능을 활용해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우리나라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개념을 산림정책에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산림면적이 73%에 달하는 화순군은 만연산 산림권역을 중심으로 산림치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화순군은 세계 각국의 산림치유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최근에 연구되는 산림치유의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2023 세계 산림 치유대회」를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화순군 일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치유 분야에서 세계 10여 개국 산림 치유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 3천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국내외 산림치유 프로그램 시연을 통해 프로그램의 기법과 실행 기술들을 협력했고, 특히 화순군과 일본 나가노현 시나노마치와는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산림치유 부문에서 상호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대회 첫째 날에는 명칭한 전라남도행정부지사, 구복규 화순군수, 임삼섭 산림청 차장, 신정훈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회식이 열렸으며, 이후 '산림치유 산업의 활성화와 산림치유지도사의 역할'이란 주제로 「산림치유 화순 국제포럼」이 개최됐다.

기존연사로 참여한 한국산림치유포럼의 신원섭 회장은 생애 주기형 산림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산림치유 정책 및 연구 사례를 제시했고, 국제

산림치유의 날(International Forest Therapy Days)을 주도하고 있는 핀란드의 카트리나 킬피(Katriina Kilpi)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산림 치유전문가 모임과 성과를 소개했다.

대만 산림 보건학회를 이끄는 대만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교수인 찌아 핀 유(Chia-Pin Yu) 교수는 산림치유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노인의 인지능력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폴란드에서 산림치료센터를 운영하는 카타지나 시모니엔코(Katarzyna Simonienko)는 폴란드의 산림치료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고, 정신분열증 및 자폐증, 노인과 여성, 만성피로, 불안, 우울감 등을 위한 폴란드 산림치료센터의 프로그램 사례를 제시했으며, 중국 산림학회 산림요양위원회 이사장 리쥘리우(Lijun Liu)는 중국 본토에서 실행되고 있는 산림치료의 개념과 중국 본토의 산림치유 현황을 소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내외 산림 치유전문가가 각국의 산림치유 시연을 통해 프로그램 기법과 현장경험을 공유했다. 일본 시나노마치의 산림 의료 트레이너(Forest Medical Trainer)인 코우리키 카즈히로(Kouriki Kazuhiro)는 자연 속에서 향기와 소리의 변화를 통해 리듬과 밸런스를 조율하는 프로그램을 시연했다.

산림치유 분야의 세계적인 영상 콘텐츠



제작자인 인도의 니틴 다스(Nitin Das)는 숲속에서 카메라로 평온함을 만드는 방법을 시연했고, 대만 산림 치유학회(Taiwan Forest Therapy Society) 차아 민 린(Chia-Min Lin) 이사는 지속 가능한 대만의 숲 아로마테라피를 선보였다. 중국 산림과학회 산림요양위원회(Forest Therapy Committee, Chinese Society of Forestry)의 리 친메이(Li Qinmei)는 다도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경험을 제공했다.

국외 프로그램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됐으며, 세계 최초의 개최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앞으로 해외 인플루언서의 실시간 홍보 동영상도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일반인 참여는 임산물을 주제로 하는

건강식 조리법(레시피) 시연, 토크 콘서트, 목공 및 요가 프로그램과 노르딕워킹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특히 세프의 쿠칭 쇼는 유성남 셰프가 참여하여 화순군의 표고버섯을 활용한 표고버섯 햄버거 조리법(레시피)을 시연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대회를 개최한 구복규 화순군수는 "오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청정한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힐링 도시 화순에서 숲이 제공하는 치유의 경험을 만끽한 소중한 기회가 됐으며, 청명한 가을 화순의 숲에서 지친 일상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경험을 누렸다."라면서 "2023 세계 산림 치유대회를 계기로 화순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치유의 장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산림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윤경호/기자

목포 문화재 야행, 가을밤 다시 떠나는 근대로의 시간여행

11월 4~5일 2일간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

'2023 목포 문화재 야행'이 오는 11월 4일과 5일 다시 한번 열려 시민과 전국장애인체전 선수단,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목포 문화재 야행은 지난 10월 제104회 전국체전 기간 이틀간 열려 시민과 관광객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번에 열리는 11월 야행은 지난 10월과 마찬가지로 8야(夜), 즉 8가지 밤을 주제로 열린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기간에 맞춰 100여년 전 근대목포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이틀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재 및 문화시설의 야간 개방,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열렸던 야행과 동일한 규모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 야행에서 관람객의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은 확대 운영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더욱 추가해 색다른 재미를 더해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지난 행사에서 '메타버스로 만나는 목포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는데, 이를 이번에도 새로 선보이는 로봇 조정 체험 프로그램 '전남디지털배움터 애디버스'와 함께 배치해 최첨단 디지털 산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야행에서는 목포 풍류단 공연과 석고마임, 샌드아트 체험 프로그램 등이 새로 추가된다. 해설사와 함께하는 근대역사투어, 인형극 복춘사람들, 문화재 스탬프ラリー 등의 체험프로그램 등은 지난 행사와 동일하게 운영돼 목포 문화재 야행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문화재를 다양한 빛으로 채색하는 미디어아트, 라이트 페인팅과 다양한 포토존이 설치되어 낭만 가득한 가을밤을 선사하고, 푸드트럭, 디저트 부스가 확대돼 오감을 만족시키는 가을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지난 행사에서 '메타버스로 만나는 목포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박종배/기자



구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자연재해 피해농가 원리금 상환연기 추진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지은행사업 지원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원리금 상환 연기 및 임차료 감면 신청을 받는다.

원리금의 상환 연기 및 임차료 감면 지원 대상이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공사를 통해 맞춤형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 과원규모화사업 등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두 번째, 지원받은 농지에 '23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자금을 지원받은 농지에 대하여 1년간(피해율 50%미만) 혹은 2년간(피해율 50%이상) 원리금 납부 연기를 할 수 있으며, 임차료

는 피해율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농지은행사업의 원리금 상환 연기 및 임차료의 감면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관내 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농가별 농작물 피해조사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지참하여 지사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업인들이 농가경영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라며 "희망을 잃지 않고 안정적인 영농생활이 가능하도록 든든한 지원자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성현/기자



경북도, '자살'은 함께하면 '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살 문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

자살 문제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적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간 450억 원의 자살 예방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자살 예방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은 9월 우리나라의 2022년 자살 사망자는 12,906명이며 인구 10만 명당 25.2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라고 발표했다.

이를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로 환산할 경우 22.6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0.6명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가장 낮은 그리스(3.9명)에 비해 5배 이상 높으며, 이웃 일본(15.2명)보다 1.5배 높은 수치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특히, 자살 사망자 수가 많은 40대, 50대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22년 사망원인 통계에 의하면 일평균 40대 6.3명, 50대 6.7명 연간 4,808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자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약 5조 4천억 원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40, 50대의 자살은 다른 연령층보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스웨덴 연구에 따르면 자살 유족은 일반적인 사망의 경우와 다른 애도 과정과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험하며 일반인 대비 자살위험이 8.3배, 우울증은 7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또, 한 사람이 자살로 사망할 때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은 최소 5~10명이며 가정의 경제 주체인 40, 50대의 자살은 심리적 어려움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 자살 유족에게 복합적



문제 발생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송파구·김포, 대전 유성구, 전남 영암군 등 잇따라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 등에서 보듯 생계를 책임지는 40, 50대 가정의 자살은 죽음에 앞서 다른 가족을 먼저 살해 후 자살이라는 극단적으로 왜곡된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집단상담학회 전종국 회장(대구 사이버대학교 교수)은 우리 사회의 자살이 많은 이유에 대해 “개발시대에서 짧은 기간 급속한 성장(40-50여년)과 성장의 가속화만큼 빈부 격차와 기득권의 확대 등 상대적으로 극심한 양극화에 따른 삶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라고 진단한다.

그중 40, 50대의 자살이 늘어나는 이유는 “치열한 경쟁 속에 노력했지만 더 이상 지위나 상승의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절망과 자책감,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나이” 40, 50대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결국 자살문제는 개인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찾아가는 것이다.

전종국 회장은 늘어나는 40, 50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 전체가

건강한 공동체 회복에 노력하여 일부 계층의 열등감, 우울감 등을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삼성병원 정신과 정성원 교수는 “자살에 대한 생각 단계에서부터 치료가 이뤄질 경우 자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으므로, 우울증 초기 단계부터 정신치료 등의 의학적 도움을 미리 쉽게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학교에 근무 중인 전문 상담교사 A씨는 “학교에서 매년 6시간씩 자살예방 의무교육을 하듯, 회사 및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40-50대를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 및 자살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40-50대의 우울감 감소 및 자살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에서는 ‘자살로부터 안전한 마음건강 경북 조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 위해수단 관리, 자살위기 대응 및 사후관리 강화에 힘쓰는 한편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 추진을 통해 자살률 감소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40대 자살동기 1위, 50대 자

살동기 2위인 경제생활 문제 해결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한 경제위기군 자살예방 지원에 힘쓰고 있다.

또, 자살 사망사건으로 인한 자살 유족의 다방면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과 자살 유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자살 유족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고, 자살 사망사건이 발생한 조직 및 단체에 대한 사후대응(교육, 상담, 조직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기부운동, 전문 교육을 받은 G-공감지기 양성 및 관리 등 마음건강 강화를 통한 40, 50대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상북도 자살률은 '18년 대비 2.8명(-9.4%) 감소, '21년 대비 2.2명(-7.6%) 감소했으며, 40, 50대의 자살 사망자 수는 '18년 대비 18.5%가 감소하는 결과를 얻게 됐다.

이제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살을 줄이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2021년 8,300억의 예산을 쏟아 붓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03년 34,427명에 이르렀던 자살 사망자 수를 2016년에는 21,897명으로 36% 감소시킬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으로 자살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이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다면 조만간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함께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윤근수/기자

가을밤의 음악 릴레이, 케이(K)-뮤직 시즌 '굿밤콘서트 인(in) 부산' 개최

11.2~11.5. 19:00'야간관광도시 1위 도시 부산에서 릴레이식 야간 콘서트 개최

부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음악콘텐츠협회(대표 김창환), 부산관광공사(사장 이정실)와 함께, 오는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오후 7시 '굿밤콘서트 인(in)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굿밤콘서트는 케이(K)-뮤직 시즌의 일환으로, 부산의 매력적인 야경명소와 음악이 만나 아름다운 밤을 만들어가는 뮤직 콘서트다.

이번 콘서트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국내 음악 콘텐츠 발전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한국음악콘텐츠협회에서 주최하는 만큼 화려한 출연진을 자랑한다.

콘서트는 4일간 부산의 주요 야간 관광 명소에서 펼쳐진다. ▲에이펙(APEC)나루공원(11.2.) ▲영동산공원(11.3.) ▲영화의전당 야외극장(11.4.-5.)에서 매일 다른 장르의 음악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일자별로 발라드, 힙합, 트롯, 케이팝 무대를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다이나믹 듀오, 에스파, 권은비, 이찬원 등 장르별 톱스타들이 총출동할 예정이다.

사전에 누리집 및 인스타그램 이벤트 참여와 추첨 등을 통해 무료로 배부한 티켓을 지참해야 콘서트에 입장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사)한국음악콘텐츠협회와 '씨클차트 뮤직 어워즈(CIRCLE CHART MUSIC AWARDS)' 부산 정례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관광도시 브랜드 및 케이팝(K-pop) 산업 지역 기반 구축을 꾀하고 있다.

'씨클차트 뮤직 어워즈'란 (사)한국음악콘텐츠협회*에서 2011년 이후 매년 1월마다 개최하는 국내 대표 케이팝 시상식으로 대한민국 유일의 국가공인 음악차트다. (舊, 가온차트)

이번 콘서트 역시, 국내 야간관광명소 도시로 나아가길 주요 콘텐츠로서, 부산에서는 흔치 않게 장르별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박근록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유명 뮤지션들을 만나기 위해 국내외 많은 팬들이 부산을 찾아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콘서트 기간 중 하루인 11월 4일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부산불꽃축제'도 개최되는 만큼 부산에 머무는 동안 매일매일 색다른 '별바다부산'의 밤을 만날 수 있도록 내실있게 행사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동구,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재난대응·수습 역량 강화를 위한 실시간 토론·현장 연계훈련 실시

윤석준 동구청장, “앞으로도 내실있는 훈련, 재난대응 체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

대구 동구청은 오는 11월 2일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내국동 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에서 실시한다. 안전한국훈련은 대형 재난 발생을 대비하고 현장 대응·수습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다. 훈련은 동구청과 동부소방서에서 주관하며 그 외 동부경찰서, 육군 501여단 2대대, 대한적십자사, 한전, KT, 대

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 등 16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다. 대형화재로 인한 산불이 주재이며, 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 내에서 용접 작업 중 폭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동구청에서 토론훈련, 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에서 현장훈련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이 별도로 진행

됐던 전년도와 달리 올해 훈련은 신속한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양 훈련을 동시에 실시하고 온라인으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훈련 중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교신을 대폭 확대 실시하여 대형 재난 발생 시 재난 관련기관 간 신속한 의사소통과 효과적인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올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업체계를 다시 점검해 재난대응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청송군, 2024년도 낙동강수계 특별지원 공모사업 선정

2024년도 산소버스(전기버스) 보급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확보

윤경희 청송군수, “공모선정으로 국비 확보, 전기버스 조기에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교통편의 증진/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청송군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낙동강수계 특별지원 공모사업에 '청송군 탄소중립을 위한 산소버스 보급 사업'으로 지원해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12억원(국비11억, 지방비1억)을 확보하여 2024년부터 전기버스 3대를 구입·보급하고, 충전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명은 도시브랜드 '산소카페

청송군'의 청정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산소버스'로 네이밍 하였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더불어 관광자원과 연계한 노선을 확대하여 신규 관광객 유치 및 체류형 관광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에는 주왕산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산소버스 보급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여 '산소카페

청송군'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자연친화적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공모선정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전기버스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민원공무원 힐링 워크숍』 실시

오도창 영양군수,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이번 힐링 워크숍에서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더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히

영양군은 지난 달 30일(월)부터 1박 2일간 강원도 홍천군 소재 힐리언스 선마을에서 민원업무 담당자 26명을 대상으로 힐링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업무 과부하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군민들에게 최상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들 간의 워크숍 일정에는 디지털 공해에서 벗어나 아웃이 자연과 소통하며 자신의 스트레스 상태를 자각하고 경직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숲테라피, 소도구테라피, 심리불비움명상, 힐링토크 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힐링토크는 민원응대 시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치유를 모색하는 과정으로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직원들은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져 너무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대민접촉이 많



은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이번 힐링 워크숍에서 직무 스트레스를 충분히 해소하고, 더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남해군 '도로정비 종합 평가 우수기관' 선정

정만식 건설교통과장, "밤낮 불문, 호우 피해·겨울철 도로 결빙 현장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위한 직원과 도로보수원들이 일궈낸 값진 성과로 내년엔 최우수 평가를 위해 노력하겠다"

남해군이 '2023년 도로정비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로정비 종합평가'는 도로 기능 유지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상남도가 매년 시행하고 있다.

정만식 건설교통과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호우 피해 현장이나 겨울철 도로 결빙 현장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온 우리 직원들과 도로보수원들께서 일궈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하며, 내년에는 최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준/기자



봉화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0월 3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봉화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74필지(상반기 토지 이동분)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로 방문 열람하거나 봉화군 누리집 또는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2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2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7명 선발

최우수 기술지원과 박세영 주무관, 저비용·고품질 '다축형 사과 수형' 생산단지 조성으로 농가 소득향상 기여

경북 영주시가 지난 27일, 적극행정 위원회를 개최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7명(최우수 1, 우수 3, 장려 3)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국민심사(20%)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사(80%)를 통해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7명을 선발했다.

주시, 경북1호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이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시장 표창 및 국내·외 연수 우선 선발, 종합성과평가 가점, 근무성적평정 가점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예정이며, 우수사례는 시 누리집 및 내부망에 게시해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전국 시군구로 홍보할 계획이다.

정금자/기자



경북도 동해안 명품 대게! 불법어선 꼼작마!

대게 성어기 불법어업 합동단속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경북도는 30일 환동해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동해어업관리단, 포항·울진해양경찰서, 연안 4개 시·군 등 유관기관이 모여 대게 성어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보공유와 협력 방안 논의의 위해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게 성어기를 맞아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 통발어업 대게 조업금지구역 위반, 연안 대게 조업시기에 따른 자리 선점을 위한 선(先)투망,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등 매년 성행하는 불법행위를 강력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부적으로는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동향을 공유하고, 행정·수사기관의 관할 해역 책임단속 및 협조체계를 구축해 용의어



를 위해 암컷대게 포획 등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다. 한편, 대게 불법포획 단속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행정처분 실적은 '19년 25건, '20년 10건, '21년 22건, '22년 2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선, 취약 시간대 집중 감시 등 경북도 특별 기동단속반 운영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북도 대게 생산량은 2021년 1,655톤, 2022년 1,515톤으로 전년 대비 140톤 감소했다. 대게 자원보호

며, 특히 식당가, 시장 등에 암컷대게(뺨게), 어린대게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그럼에도 올해 9월에는 경주 해상, 10월에는 포항 호미곶 해상 앞바다에서 암컷대게와 어린 대게를 포획하여 유통하다가 단속되는 등 아직도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전국 대게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동해안의 대게 및 붉은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 체계와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불법어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합동단속 이후에는 대게사범 제로화를 목표로 어업질서 확립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도산서원의 가을밤을 밝힌, 야간개장 성료

지난 10월 29일을 끝으로 마무리. 기간 중 1만여 명 방문



'2023 도산서원 야간개장'이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18시부터 22시까지 17회 운영된 후, 지난 29일을 끝으로 1만여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도산서원 야간개장은 지난 수년간의 야간개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산서원의 야간 정취를 시각적, 체험적, 청각적으로 극대화하고자 노력했다. 지난해 설치했던 서원 앞마당의 대형 달 조명을 서원 뒤에 배치해 서원 전체를 비추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연출했다. 대신 마당에는 장혜경 작가의 달 조형물을 제작해 관람객들이 인종상 명소로 활용하게 했다. 서원의 입구와 도산서당 안에는 미디어 아티스트 김혜경 작가의 작품이 스크린을 통해 관람객들

맞아했다. 또한, 평소에 보기 힘든 '경전 성독(聲讀)'을 매주 토요일마다 도산서원 별유사들이 진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배우들이 도산서원 각각의 장소에 배치돼 관람객에게 장소 설명뿐만 아니라 관람 가이드를 하며 도산서원에 대한 체험적 이해를 도왔다. 야간 개장 기간 중 도산서원의 야간 정취와 어울리는 성악, 정가 및 다양한 공연이 운영돼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한 '도산서원 야간개장'이 내년에는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니 기대해도 좋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2023 한옥문화박람회' 오는 2일 개막

'가치를 잇는 한옥' 주제로 전시회, 컨퍼런스, 부대행사 열어

경주시가 '2023 한옥문화박람회'를 11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서 개최한다.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HICO가 주관하는 이번 한옥문화박람회는 '가치를 잇는 한옥' 주제로 한옥이 필요한 이유와 미래건축으로서 가치를 이어가는 한옥의 지속가능성 등을 제시한다. 행사는 40개 참가업체와 140개의 전시부스, 컨퍼런스,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돼 펼쳐진다. 전시회는 △한옥건축 △한옥자재 △인테리어 △한옥문화 △한옥정책 등 5개 분야로 나눠 설계·시공·인테리어 등 한옥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적인 전시품목으로 구성됐다. 현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전시뿐만

아니라, 한옥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는 다채로운 강연도 준비했다. 4일 14시부터 개최되는 한옥 트렌드 컨퍼런스는 △다니엘텐들러 소장 △한옥스테이 숙박공유 플랫폼 '위홈' 조상구 대표 △조인선 대표 등이 연사로 참석해 주거·상업·공공용 한옥의 주요 프로젝트 및 트렌드를 소개한다. 5일 14시부터 개최되는 한옥 시공 컨퍼런스는 △경주건축사회 정대열 건축사 △로담신한옥 조정환 대표 △대보세라믹 박효진 대표 등이 연사로 참석해 한옥 단계별 시공법부터 유지·보수까지 실생활에 도움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부대행사는 한옥건축 시 필요한 건축비용, 자재 등에 대한 상담을 비롯해 관람객-참가업체의 연계 등의 건축 상담

회가 진행된다. 한옥과 어울리는 목공예, 규방공예, 테라리움(한옥 정원), 한식 디저트 등 트렌디한 '한옥문화 클래스'도 4일 동안 무료로 선보인다. 특히 유명 스탬프작가와 문화해설사가 함께하는 경주 한옥명소 투어와 한옥배경 감성사진 촬영 프로그램은 체험해 볼만 한다. 주낙영 시장은 "한옥의 주거문화 트렌드를 주요 콘텐츠로 활용해 한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전시회의 목적"이라며 "이번 박람회로 지역에 분포한 우수한 한옥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 내 한옥문화 산업 브랜드화 제고에 많은 기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예천군, 제4회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2023 예천농산물축제 및 예천축산물 소비촉진행사 대비에 만전! 김학동 군수, "많은 군민과 관람객이 참여 예상돼, 안전사고 예방과 현신속 대응 체계 구축, 유관기관 모두가 공동 사명감으로 축제 안전관리에 최선 다할것" 당부



예천군은 지난 30일 오후 4시, 군청 3층 회의실에서 2023 예천농산물축제 및 예천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제4회 예천군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예천경찰서, 예천소방서, 예천교육지원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의 안전관리 위원과 축제·행사 주최부서가 참석해 축제·행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안전관리계획의 축제·행사 관람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축제·행사장 인원 밀집, 안전관리 상황 발생 시 조치사항, 축제장 안전관리대책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안

전관리계획을 가결했다. 축제·행사 주관부서는 이날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안전관리 의견을 반영해 축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축제는 많은 군민과 관람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여건에 맞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군민 안전에 대해 유관기관 모두가 공동의 사명감으로 축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경북도,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경북도는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전 도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30일 경산시 일원에서 실시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2005년부터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매년 실시하는 범국가적(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차원의 재난대응 종합훈련으로 금년이 18회째이다.

이번 훈련은 100헥타르(ha) 이상의 대형산불 발생 상황을 가상해 송전선로 소실과 이에 따른 대규모 정전 발생, 산림 인접 주민과 요양병원 환자 대피, 청도~경산 간 고속도로 통제 등 산불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을 부여하고 상황별 대응 협력체계 점검과 점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북도가 실시한 이번 훈련에는 모든 유관기관이 총력 대응해야 하는 대형산불 특성상 경산시와 인접한 영천시.청도

송전선로를 지켜라! 대형산불 및 정전 사고 대응 훈련



군도 훈련에 참여하는 등 산림청, 한국전력공사대구본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등 32개 기관.단체 600여 명과 헬기 6대 등 산불 진화장비 70대가 동원되어 산불 재난현장을 방불케했다. 특히,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현장

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진행하는 통합연계 훈련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드론, 재난안전통신망, CCTV 등 경북도가 보유.구축 중인 모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산불 발생 상황을 파악하고 산불 진화 인력.장비를 투입하는 등 실전 대응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재난이 발생하면 초기대응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따라 재난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재난 대응력은 평소 거듭되는 훈련을 통해 발휘된다. 평상시 유관기관과 소통 체계 확립과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재난에 강한 안전한 경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낙동강 국가정원 추진 주민설명회 개최

10.30. 16:00 부산도서관에서 개최



부산시는 지난 30일 오후 4시 부산도서관에서 낙동강 국가정원 추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국내 최대, 부산 제1호 지방정원인 '낙동강 지방정원'의 등록.운영사항과 국가정원 지정에 따른 추진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주민, 국회의원, 부산시 행정부시장, 사상구청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낙동강 지방정원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2009.12~2016.10)을 통해 자연수로, 습지, 보호숲, 자연초지, 산책로 등을 조성된 250만 제곱미터(m²) 규

모의 국유지(환경부)로,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시는 이 일대를 철새와 사람이 공존하는 낙동강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8월 부산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정원으로 3년 이상 운영해야 국가정원 지정을 환경부에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자연자원과 철새도래지 등의 장점을 살린 기존 지방정원의 4개 주제(철새, 사람, 공유, 야생) 정원에서 물의정원을 추가해 5개 주제를 가진 국가정원 기본구상(안)을 마련해 국가정원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야생의 정원에는 탐방습지를 설치해 기존 생태습지를 보전하면서 시민들이 걷고 탐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철새의 정원에는 겨울철에는 철새먹이터를 조성해 정원을 철새들에게 내어주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계절별 다양한 꽃밭을 조성해 사람들이 관람하도록 한다. 또, 철새먹이터 수로를 활용해 철새 탐방을 할 수 있게 하고, 보호숲 녹지대를 시민참여정원, 국내·외 작가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람의 정원에는 감성야생화단지 등을 활용해 정원의 중심으로 계절꽃, 야생화 등을 조성해 체험.정원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유 정원에는 물의 정원에는 대저대교 건설과 연계해 대규모 습지, 서식지 정원, 갯벌정원 등을 조성하고, 삼락동치 상단부에 있는 강변을 따라 셋길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해 걷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물의정원에는 국내 최대 연꽃단지를 조성하고 그 주변을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상식물로 조성할 계획도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국가정원 지정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사업을 연계 추진해 서부산권 균형발전도 함께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낙동강생태관광센터, 삼락생태공원과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보행교인 사상리버프린트를 조성하고 친환경이동수단을 도입해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에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대저대교 건설과 연계한 전망대, 다양한 접근로를 조성하며, 국가명품화 천살리기 사업으로 친수공간에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국가정원 기본구상(안)에 반영한 다음, 이를 산림청, 환경부, 문화재청 등 중앙부처와 계속해서 협의, 보완해나가며 국가정원 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갈 계획이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부산 제1호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낙동강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마련한 기본구상(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들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는 낙동강 지방정원을 3년 이상 내실 있게 가꾸고 운영.조성하는 등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과제를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대한민국 대표축제 '청송사과축제' 개막 사과향 가득한 청송읍 용전천으로 놀러오세요!

윤경희 군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반 편성 등,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장 만들겠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가을축제의 백미 '청송사과축제'를 마음껏 즐겨 보시길 바란다."

대한민국 대표축제 '청송사과축제'가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청송읍 용전천(현비암 앞)에서 개최된다.

제17회를 맞은 올해 청송사과축제는 '청송사과, 찬란한 금빛 향연'이란 주제로 열리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려하고 청정한 자연을 배경으로 청송사과의 수확철을 맞아 풍성하고 다채롭게 꾸며진다.

특히 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산소카페 청송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제슬로시티', '산소카페 청송정원' 등 최고의 청정 관광도시를 더욱 부각시키고, 용전천 현비암 주변 자연경관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장을 축제와 연계해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축제장을 만들었다.

또한 청송사과축제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청송꽃물놀이 경연대회를 전국대회로 개최하고 최우수상 시상 훈격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으로 격상시켰으며, 개군 600주년을 기념하여 청송도호부사 퍼레이드도 선보여 완성도 높은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방문객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축제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사과선별 로또, 꿀잼-사과난타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하였으며, 인기가수들이 출연하는 풍성한 공연과 주민들이 펼치는 재능기부 프로그램, 전국교장사씨름대회 등 다양한 연계 행사도 준비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올해는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반을 편성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장을 만들 방침"이라며, "가족, 친지들과 함께 놀러 오셔서 가을축제의 백미로 꼽히는 '청송사과축제'를 마음껏 즐겨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행정안전부 합동,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인파사고 및 산불발생으로의 확산 복합재난에 따른 기관협업대응 훈련 실시

영양군은 지난달 27일(금),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다중밀집시설인 문화체육센터에서 밴드 공연 중, 원인 미상의 대형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인파사고 및 산불 확산의 복합상황을 가정하여, 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임무·역할을 숙지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했다.

영양군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영양경찰서, 영양·임남119안전센터, 제5312부대 1대대, 영양교육지원청,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 한국전력 영양지사, KT 영양지사, 영양군외용소방대연합회, 산불진화대 등 300여명이 훈련에 참석했으며, 이번 훈련의 참여기관을 전년 10곳에서 13곳으로 확대 실시하고, 관내 학생의 훈련참여와 참관을 이끌어냄으로써 훈련의 실효성을 더욱 높였다.

금년도 안전한국훈련은 처음으로 재난현장과 재난안전대책수습본부·사고수습본부를 이원체제로 가동하고 실시간으로 연계함으로써 실전과 같이 실시하였다. 또한 구조인력과 장비의 사전대기 없이 각 진행상황에 맞추어 각급 기관(군·소방·경찰·DMAT)의 협력으로 실시간으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대응조치를 실시하여 내재화한 대응능력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훈련은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포함된 현장 대응 기관 초기대응을 최우선 목표로, 재난대응 매뉴얼을 반영하고(▲정후감지, ▲초기 대응, ▲비상대응, ▲수습·복구)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를 적용한 시나리오에 기반에 두고 진행했다.

훈련을 주관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과 신현동 총괄 팀장은 "재난발생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대응 능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여 기관장의 정확한 지휘의 인식이 매우 인상 깊었다."라고 했으며, "재난 현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 기관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며 재난 현장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전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훈련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주민들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재난은 불시에 예고없이 발생하므로 오늘 훈련에서 보았듯이 일상분란한 대처만이 가장 최선의 대응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일상속에서 재난안전 의식을 높이고 재난유형별 대응능력을 키워 안전 영양군을 함께 만들어가는데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한국자유총연맹 금정구지회 부곡3동분회, 독거노인 돕기 일일호프 개최

따뜻한 동행,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사랑 실천해

부산시 금정구 한국자유총연맹 금정구지회 부곡3동분회는 지난 23일, '독거노인 돕기 일일호프'를 개최해 따뜻한 동행,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행사에 많은 분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으며 수익금 100만 원은 독거노인 돕기 성금으로 부곡3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하였다.

윤성에 위원장은 "바쁘신 가운데 일일호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직접 땀 흘려 번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탁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영덕군, 수산물 방사능 검사 43건 결과 '검출 0건'

생산단계에서 유통단계까지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운영 김광열 영덕군수, "영덕 바다와 수산물은 안전하고 신선하니 안심하시고 그 맛과 영양을 충분히 즐기시길 바란다"고 밝혀

영덕군이 다음 달 2일, 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를 앞두고 총 43건에 대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덕군은 지난 8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비해 방사능 검사장비를 도입했다.

검사 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의 방사능 검사 지표인 요오드와 세슘이며, 방사능 물질 허용기준치는 1kg당 100베크렐(Bq)이지만 1베크렐만 나와도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한 후 추가 정밀검사에 들어갈 만큼 신뢰도를 높였다.

이번 검사는 유통전 생산단계인 수산물에 대상으로 강구수협 위판장 16건, 영덕북부수협 위판장 13건 총 29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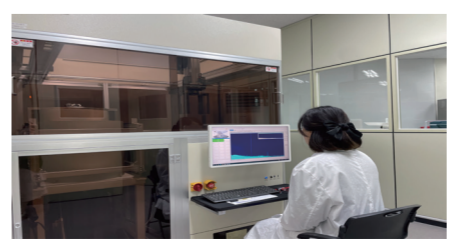
검사했으며,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동광어시장, 영덕읍시장 등 재래시장에서 유통 중인 수산물은 총 14건을 검사한 결과이다.

영덕군은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에 대응하고 관내 수산물의 안전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검사 대상을 기존 생산단계 수산물에서 유통단계의 수산물까지 범위를 확대했고, 검사 결과는 군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하고 경북도와 해양수산부와도 해당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전 국민이 사랑하는 지역의 명품 특산물 대개가 제철을 맞이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시행해 관내 수산물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영덕 바다와 수산물은 안전하고 신선하니 안심하시고 그 맛과 영양을 충분히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서초구, 주민 리빙랩으로 도시 문제 스마트하게 해결하다!

최우수상 '길마중길 도보길 찾기 앱'으로 편리성과 안전성 더한 길찾기 및 불편사항 공유 제안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국내외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은 서초구가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주민 아이디어로 지역문제 해결에 나선다.

서울 서초구는 30일 2층 대강당에서 '서초 스마트도시 리빙랩 프로젝트 성과 공유회'를 열고, 주민 제안사업 3건을 실증 대상으로 선정했다.

스마트도시 리빙랩은 '생활 속 실험실'이란 의미로, 4차 산업 기술 등을 활용해 생활 속 문제를 주민이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보는 프로젝트다.

구는 스마트도시 리빙랩을 통해 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코자 작년초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 구는 지난 6월 공모해 9개 프로젝트팀 중 5개 팀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은 6월부터 이달까지 약 5개월간 4차 산업기술 전문가 컨설팅 등을 거쳐 지역 문제를 해결할 스마트도시 서비스 모델을 도출했다.

이번 발표회에선 총 5개 팀이 발표했으며, 안전, 육아 등 다양한 도시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 방법들이 소개됐다.

이번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은 '길마중길 도보길 찾기 앱 활용(이길어매팀)'이 받았다. 해당 팀은 QR코드가 연결된 커뮤니티 앱을 통해 주민들이 즐겨 찾는 길마중길의 길찾기를 공유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편리성과 안전성을 더한 정책을 제안했다.

우수상은 '주민건강을 위한 조도 조절형 가로등'(서초 안전 스마트팀)가, 장려상은 '몽마르뜨 공원, 안전 지킴이 키오스크'(서초의 발견팀)가 각각 선정됐다.

먼저, '서초 안전 스마트팀'은 주민들

의 빛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IoT 기반 반사광·조도 조절형 가로등을 제안했다. 시간과 상황에 따라 빛 가림막을 조절하는 해당 가로등은 안전확보와 동시에 주민 불편도 해소한다. 또, '서초의 발견팀'은 이용자 중심의 안전사고 신고 시스템으로, 공원에서 키오스크 신고 시 CCTV 등으로 실시간 위치정보 등을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서초구형 스마트 안심 공원 조성(AGI가죽탐험대팀) ▲주민소통의 공간, 체계산 수변공원 활용(내곡중학부호회팀)이 발표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실증 대상에 선정된 팀에 대해서는 최우수상 1팀 50만원, 우수상 1팀 30만원, 장려상 1팀 20만 원이 수여됐다.

구는 3건의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보완·발전 후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리빙랩 프로젝트 우수 선정 사업에 대한 실증을 완료했다. 당시 최우수상을 받은 '스마트시티 화재대응시스템'은 현재 '서초구 스마트시티 앱'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우수상을 받은 '푸박스 및 간식 공장 설치' 사업은 QR코드가 인쇄된 반려견 전용 배변봉투를 활용한 배변 처리를 개발 중으로 연말까지 반려견 놀이터 및 공원에 설치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스마트도시 리빙랩 등 주민들이 직접 만든 반짝이는 정책이 구정 곳곳에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흥수/기자



"혼자 와도 괜찮아" 금천구 첫 청년축제 개최

체험 부스 임무 성공 시 '식재료 카드' 지급, 먹거리 및 물품구입 할인 혜택

금천구는 11월 4일 14시부터 구청 광장에서 제1회 금천 청년축제 '혼자 와도 괜찮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혼자 와도 괜찮아 축제' 1인가구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청년층부터 지역 주민 모두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8월 29일 위촉된 금천 청년축제 기획단 9명이 직접 소재 발굴부터, 프로그램 구성까지 청년의 시각에서 기획했다.

중앙 무대에서는 '동행 버스킹', '수상한 협동조합', '청춘벨딩'에서 준비한 음악 공연과 '이불 정리' 및 '청년 퀴즈' 대회가 진행된다. '금천구 청년정책의 미래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청년정책 비전 선포식도 개최된다.

특히 1인가구 대표 연예인 '이국주'가 자취 경험담 등 1인가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가수 '래원'이 힙합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부스에서 주민에게 즐길 거리가 제공된다. 체험 부스에서는 ▲ 텔레비전 빨리 끄기 ▲ 무인 택배함 퀴즈 ▲ 금천구 맛집 말하기 등 혼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게임과 ▲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댓글(캘리그래피)로 써보기 ▲ 자취방에 두고 싶은 방향기(디퓨저) 만들기 ▲ 나만의 색깔 찾기 등 여가활동 체험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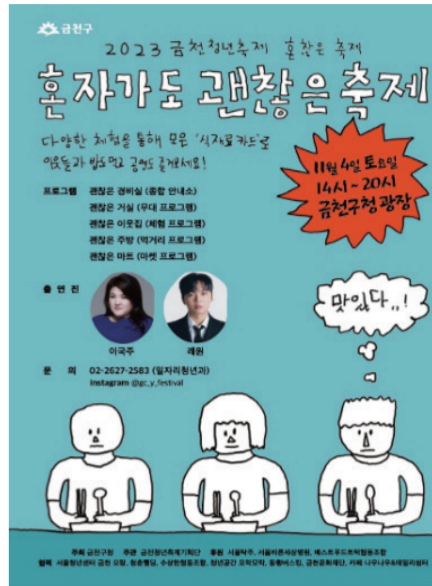
또 먹거리 부스와 자취에 필요한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부스도 운영된다. 체험 부스에서 주어진 임무를 달성

한 주민들에게는 먹거리와 물품을 살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식재료 카드'가 지급된다.

청년축제기획단 단원들은 "몇 개월간 단원들이 열심히 기획해 청년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다"라며,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하루에 특별한 경험을 더할 수 있는 청년축제가 많이 놀러 와달라"라고 말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청년들의 시각에서 기획돼 더욱 특색있고 재미있는 축제가 만들어진 것 같다"라며, "올해 처음 개최되는 금천 청년축제가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성동구,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인증

2020년 최초 인증에 이어 이번 재인증으로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서울 성동구는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인증을 받아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성과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성동구는 지난 2020년 5월 고령친화도시 3개년 조성계획을 제출하여 최초 인증을 받았다. 그 후 3년간 노인복지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고 2024~2028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중장기계획의 기본방향을 1,500여개 회원 도시들과 공유하면서 이번에 재인증을 받게 된 것이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운영하는 국제 플랫폼으로, 인증을 받은 회원 도시 간 노인복지 정책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고령친화도시 공유의 장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외부환경과 시설 ▲교통수단 편의성 ▲주거환경 안정성 ▲고용과 사회참여 ▲여가와 사회활동 등 8대 영역을 고령친화도시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성동구는 2020년 첫 인증부터 현재까지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스마트 100세 포용도시 성동'이라는 비전으로 8대 영역의 총 81개 사업을 실행 중에 있다.

지난 3년간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2022년 성동50플러스센터와 용답동노인복지관 개관 ▲2023년 송정노인복지관 개관 등 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어르신 여가문화 인프라를 확대했다. 또 경로당 제로에너지 전환사업(ZEB)으로 어르신 정주환경을 개선했다. 어르신 교



통사고 예방을 위한 성동형 스마트 횡단 보도 78곳을 운영하고 무더위 그늘막 설치와 온기누리스, 스마트쉼터를 운영하는 등 편의증진에 앞장섰다.

주거환경 안정성에서 두드러지는 사업은 '낙상방지 안심돌봄 효사업'이다. 어르신 건강에 치명상을 입히는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실버카, 안전손잡이, 낙

상방지매트 등 낙상예방물품 29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르신 일자리사업도 활발히 진행됐다. 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총 1,881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세대 간 통합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르신 한마당 축제

는 경로의 달(10월)을 기념하여 기획된 사업으로 어르신 프로그램 발표, 공연, 어르신 복지 부스운영 등으로 2022년에 처음으로 개최했다.

성동구의 대표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인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은 건강측정과 질환관리, 치매안심, 의료비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고위험 어르신에게 집중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또한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사업도 실시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지원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성동형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어르신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인증은 어르신들과 함께 이루어 낸 좋은 성과이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실행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경북의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동해안 청정해역! 안전한 우리 수산물!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김진태 강원도지사, “미래산업유치가 지역소멸 대응”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7일 오후 4:15에 경상북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미래산업인 반도체, 바이오헬스 육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각 부처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진태 지사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전국4대 협의체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진태 지사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 오색케이블카가 연내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2개의 인허가 및 심의절차 중 11개를 이행해 1개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이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준 중앙부처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오늘의 회의 주제가 지역소멸인데, 미래산업이 유치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 사람이 모이니, 미래산업

중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원주 편입 희망



유치가 곧 지역소멸대응의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미래산업인 반도체와 바이오헬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야기했다.

특히,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원주가 편입될 것을 요청했다. 입지적으로 용인과 30분대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 어제는 삼성전자와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반도체산업 발전 협력 협약식을 가진 점 등 반도체 산업의 그간의 성과를 덧붙여 이야기했다.

뒤이어 올해 하반기에 공모가 예정되어 있는 산업부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강원특별자치도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바이오헬스의 경우 추천 제외인단, 원주 정밀의료, 홍천 국가항체, 강릉 천연물, 평창 그린바이오로 이미 바이오 헬스 5대 벨트가 구축되어 집중 육성 중인 점을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미래산업을 잘 키우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도 좋아질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소멸 위기극복의 선도 모델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아산시, ‘시민 경제 동향 빅데이터 분석’ 완료

아산시는 경제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시민 경제 동향 빅데이터 분석’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충남도 및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호서대학교와 함께 추진했으며, 작년 주요 관광지 분석에 이어 도와 두 번째 협업이다.

주요 내용은 가맹점 수 변화 및 업종별 변화, 시내 거주자 소득과 소비부채 현황 등이며, 카드 소비 데이터(휴/페이), 신용부채 데이터(소득, 소비, 부채) 등의 민간 데이터를 활용했다.

분석에 따르면, 카드 소비 금액(BC카드)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년에 '19년 대비 8.3% 감소했으나 이후, '21년 1.9%, '22년 5.6% 등 매년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의 월평균 소득금액은 3117천 원('22년 기준)으로 40, 50대가

소득금액이 가장 높으며, 특히 40대의 경우 '22년 10월을 기점으로 소득금액이 4천만 원을 넘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또, 충남 전체의 경제활동 인구수는 60, 70대 고령층 비율이 늘고 있지만, 아산시의 경제활동 인구수는 20, 30대 등 청년의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가맹점 분류별 변화에 따른 추천 가맹점 제안 △코로나19 이후 경제 현황 파악 △저소득 구간 보완책 마련 △자영업자 회복 정도 등 이번 분석 결과를 맞춤형 경제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문병록 미래전략과장은 “활용성 및 신뢰성 높은 양질의 민간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현안 분석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과학적 행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충남도, 독 인피니언과 ‘미래 신산업 협력’ 강화

‘외자유치 출장’ 김태흠 지사, 인피니언 본사 방문해 임원진 접견



충남도가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지난 6월 손을 맞잡은 독일 기업 인피니언과 사업 추진 방향 구체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외자유치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유렵을 출장 중인 김태흠 지사는 30일(이하 현지 시각) 독일 뮌헨 인피니언 본사를 방문, 양 기관·기업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문에는 박경규 아산시장과 김명숙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박미옥 의원 등이 동행했다.

인피니언에서는 안드레아스 슈마허 전략 및 인수합병 총괄, 마이클 볼 공공정책 전무, 안젤리카 이베를 산업정책 상무 등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슈마허 총괄과 요하킴 비더 최우수 개발자가 직접 30여 분 동안 인피니언 생산 제품에 대한 설명을 진행,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논의에서 김 지사는 “인피니언이 전력용과 자동차용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 점을 알고 왔는데, 생산 제품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다시 한 번 업계

최고인 점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환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6월 도와 인피니언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거론하며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전력,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을 추진해 나아가자”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충남은 대한민국 내 화력발전소 절반이 소재해 있다”라며 “이 때문에 우리 도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탈석탄 에너지 전환, 해상 풍력발전단지 건설 등을 추진 중으로, 이 과정 속에서 인피니언의 전력용 반도체 등은 쓰임새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대학, 삼성·현대와 같은 대기업 등 충남의 풍부한 인프라와 함께, 미중 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인 문제점을 꺼내들며 “인피니언이 아시아 거점을 충남에 뒀으면 좋겠다”라며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중앙정부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인피니언과의 논의 자리에 배석한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차량용 반도체 △천안아산 반도체 후공정 고도화 사업 △전력용 반도체 △차량용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건립 △도내 3개 수소생산기지 건립 등 도가 중앙정부와 추진 중인 사업 등을 설명하며 인피니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제안했다.

인피니언은 독일 지멘스의 반도체 부서가 1999년 독립해 만든 기업으로, 전력 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종업원 5만 6000명 중 연구 인력은 1만 2000명(21.4%)에 달하며, 연매출 142억 유로(약 22조 3000억 원) 가운데 17억 유로(약 12%·2조 5000억 원)를 연구개발비로 사용 중이다.

우리나라에는 6개 사업장이 있으며, 생산은 천안 공장이 맡고 있다.

도와 인피니언은 지난 6월 7일 도청에서 △신재생에너지 △반도체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리제 육성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상생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최정근/기자



충북도, K-바이오 스퀘어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연말까지 내년도 국비 확보 및 예타면제 총력

지난 8월 착수한 K-바이오 스퀘어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의 중간보고회가 30일 청주SB플라자에서 개최됐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김명규 경제부지사와 이균민 KAIST 대외부총장, 최웅기 KAIST 오송캠퍼스 조성위원회 공동 위원장, 전호리 경영전략팀장, 이수훈 LH충북지사 지역균형개발부 팀장, 박봉규 청주시 신성장전략국장과 용역 수행업체인 (주)이니싱크 이기중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K-바이오 스퀘어의 핵심 가치와 방향점, 산단 내 배치계획,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추진 전략 등이 논의됐다.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지난 8월 10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25만 평의 오송 3산단 농지해제 협의가 완료됐고, 9

월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겸 수출투자 대책 회의에서 한국형 캔달스퀘어 조성을 위한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상세 계획이 논의되는 등 K-바이오 스퀘어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들이 하나씩 마련되고 있다”며, “적극 협조해 주시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관, KAIST, LH, 청주시, 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내년도 국비 30억원 확보와 예타면제사업 선정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뭉쳐, 오송첨단단지과 3산단에 KAIST를 중심으로 하는 대변화를 일으키자”고 말했다.

K-바이오 스퀘어 조성사업은 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과 초격차 기술 마련이 기대되는 국가 중요사업이다.

산학연병 집중을 통한 한국형 캔달스퀘어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2조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월 18일 개최된 비상경

고정화/기자

원주시, 민선8기 공약사업 및 정책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대중교통과 최우수, 자치행정과-치매안심과 우수



원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공약사업 및 정책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민선8기 원주시의 공약·정책사업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공약평가단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직원들의 열연 응원 속에 대중교통과가 최우수, 자치행정과와 치매안심과가 우수, 정보통신과, 보육아동과, 도로관리과가 장려를 수상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이번 자체 대회를 통해 원주시의 우수한 정책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한다.”라며, “직원들이 더욱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나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는 올해 열린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문화활성화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정환/기자

춘천시 시립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시행

춘천시는 오는 11월부터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앞으로 춘천시민은 읽고 싶은 시립공공도서관 도서를 가까운 동네 도서관으로 신청하고 받아서 대출·반납할 수 있게 된다.

상호대차란 이처럼 협력도서관에 소장 도서를 빌려주는 제도로 춘천시 공공도서관 8개소 60만권의 장서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개별 도서관의 한정된 장서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독서할 수 있다.

춘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23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지원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어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1억 3천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았으며 시비 포함 총 2억 5천만원을 투입, 시립공공도서관 8개관, 작은도서관 10개관에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하고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했다.

오는 11월부터 공공도서관 8개소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2월부터는 18개소(공공 8개소, 작은 10개소) 동네 가까운 도서관에서 시립공공도서관 책을 빌려 볼 수 있어 도서관 거점 마을 중심의 생활 밀착형 독서환경이 조성된다.

이등원/기자

2023 태백시 진로·직업체험 진로박람회 개최 '지역사회 손잡고, 청소년 진로Job고'

태백진로체험지원센터는 오는 31일 관내 청소년 530여 명(초 4~6학년, 중 1~3학년)을 대상으로 2023 태백시 진로·직업체험 진로박람회 '지역사회 손잡고, 청소년 진로Job고'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진로·직업체험 진로박람회는 청소년들의 진로 이해를 돕기 위한 진로 특강, 직업 현장체험, 환경 산업체험(업사이클링), 진로상담 등 총 4개의 영역을 구성했다. 또한, 다양한 진로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여러 분야의 직업군을

알리고, 진로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진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 외에도 태백경찰서, 태백소방서, 태백보건소,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 태백산국립공원관리소, 태백국유림관리사무소 등 공공기관과 태백시 관내 진로 관련 체험처 31곳을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직업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원영미 태백시청소년수련관장은 “진로체험지원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

교육지원청과 3년 연속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 식품자동판매기(자판기) 특별점검 실시

11. 1. ~ 11. 30. 260대 위생상태 등 점검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가을이 철을 맞아 식음료 안전 관리를 위해 식품자동판매기(자판기)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단풍 구경 등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됨에 따라 진행된다. 지하철 역사 및 편의점 내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자판기) 237개소(260대)를 대상으로 위생상태 및 영업자 준수 사항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신고·무등록 제품 및 유통(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자판기 외부·내부 위생 상태 및 고장여부 점검 및 일일점검 기록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적으로 확인한다.

덕양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식음료 위생 관리 상태를 강화하고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들이 식품 자동판매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충남도, 4일간 전시동원태세 실효성 검증한다

30일 '2023 충무훈련 최초상황보고회의'...도내 곳곳서 실제 훈련 등 추진

충남도가 전시동원태세 실효성 검증을 위한 '2023년 충무훈련'에 돌입했다.

도는 30일 도청 충무시설에서 '2023년 충무훈련 최초상황보고회의'를 열고 훈련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와 도 실·국·본부장, 32사단, 도경찰청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군·경찰·소방·의무 등 분야별 상황실 보고, 전시종합상황실 보고, 지침 전파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6년 만에 정상 실시하는 이번 충무훈련의 목표는 주요 자원 동원,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대응 및 피해 복구 등 지역 단위 전시 동원 태세 확립이며, 오는 2일까지 4일간 도내 곳곳에서 추진한다.

일정별 훈련 내용은 30일 상황 조치 연습, 31일 자원 동원 및 산업 동원 물

자 생산 훈련, 1~2일 피해 복구 및 테러 대비를 위한 실제 훈련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사 상황과 전시 상황을 가정한 상황 조성 전문을 공유하고 충무사태별 조치사항 이행 절차, 관계기관 공조, 현장대응반 운영 및 유기적 협조 강화 등 주요 지침을 하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충무훈련인 만큼 도 전시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실·국·별 소관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훈련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충무훈련 3, 4일 차에 진행할 피해 복구 실제 훈련 등에 많은 수송장비를 실제 동원해야 하는데 안전 관리도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최정근/기자



영덕 CCTV 통합관제센터, 실종자 골든타임 '결정적 역할'

휴대전화도 없이 실종된 치매 어르신 30분 만에 찾아



영덕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지난 30일 오후 7시경 영덕경찰서 수사과로부터 실종된 치매 어르신의 수색 협조 요청을 받은 지 30분 만에 실종자를 발견해 안전 귀가에 일조했다.

해당 실종자는 영덕읍에 거주하는 81세 치매 어르신으로, 당시 고령에 휴대전화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경찰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영덕군 관제요원들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실종자의 거주지와 인상착의 등의 설명 듣고 이를 토대로 900여 대의 CCTV를 집중적으로 관제한 결과 실종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었다.

영덕군 CCTV 관제센터는 2019년 2월 개소해 지역의 안전과 치안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으며, 지난 5월에도 실종 치매 어르신을 조기 발견해 귀가시키는 등 면밀한 모니터링으로 파수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태호 일자리경제과장은 "영덕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속적인 직무 교육과 실전과 같은 모의훈련 등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군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포항시, 헬러윈 및 수능일 인파밀집 대비 시민 안전에 '총력'

인파밀집 예상지역별 현장관리반 배치, CCTV 관제를 통한 실시간 대응 예정

포항시가 10월 31일 헬러윈과 11월 16일 수능시험일을 앞두고 인파밀집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거리 등에 인파밀집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지역별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안전관리대책은 남·북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단체와 함께 현장 안전관리반을 구성하고, 헬러윈·수능일 전날과 당일 민관이 합동으로 사전 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방문객 밀집에 따른 분산 통행로 확인, 불법 지장물·주정차 확인 및 철거, 주요 통행로 내 시설물 전도 위험 여부, 인파 밀집 예방 안전사고 예방 시설 설치 여부, 비상시 응급차량 통행

로 확보 여부 등이다.

이와 병행해 포항시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포항 대전환' 운동의 하나로 '안전 한바퀴'에 시민 참여를 유도해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헬러윈·수능일 당일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통한 지속적인 상황관리와 함께 안전관리반을 현장에 배치하고, 질서유지 및 혼잡 해소를 위해 현장 예찰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위험 징후 감지 및 발생 시 이동식 확성기·재난문자 등 신속한 위험상황 전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즉각적인 현장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인파밀집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제나 행사 등에 안전관리 사전점검 체계와 매뉴얼을 정비하고, 지난 불빛축제에서는 실시간 인

파밀집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사고 없는 축제를 개최한 바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예찰과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위험요소를 미연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심하고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월 개최 예정인 지역축제·행사를 파악해 순간 최대인력 1,000명 이상 참여 등 고위험 축제·행사일 경우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개최를 통한 안전관리계획 점검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타용/기자

용인도시공사, 용인동부서 중앙지구대와 합동순찰 실시

용인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교통사업부는 지난 26일 용인동부서 중앙지구대와 함께 금학 공영주차장 일대를 중심으로 시민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찰 활동은 잇따라 발생한 불법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제외고 등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지역사회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고 전했다.

김민배 교통사업처장은 "단발성으로 그치는 행사가 아닌 지속적 추진을

통해 공영주차장 인근의 빈틈없는 치안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윤길 교통환경본부 본부장은 "용인시민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경찰과 지속적인 합동순찰을 통해 치안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시민 안전에 공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범상/기자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조례 제정
도민의 삶을 향상시킬 규범을 만듭니다.

정책대안 제시
대안을 제시하여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듭니다.

도민 행복

예산안 심의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살핍니다.

집행부 견제·감시
합리적으로 집행하는지 정책을 체크합니다.

도민이 행복한 희망 경북! 경상북도의회가 만들어 갑니다.

울진해경, 값싼 수입산 소금 섞어 꽃소금으로 허위표시 제조·유통한 업자 단속

울진해양경찰서는 27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및 김장철 도래에 따른 소금(천일염 등) 가격상승으로 무허가 생산·판매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소비 심리 안정을 위해 불법 제조·유통·판매 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울진·영덕 일대에서 값싼 중국산, 호주산 소금 등을 섞어 판매하고 있는 OO 소매상을 통해 소금의 규격표시가 상이한 포대를 확인한 후 업체를 역추적, '기타소금을 재제소금'으로 거짓표시하여 제조·유통한 식품가공업체 대표자 A씨를 검거했다.

A업체는 호주와 중국산 소금을 사용해 재가공한 소금인 '기타소금'을 '재제소금'인 꽃소금으로 거짓 표시하여 소분·포장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소금은 유형이 상이한 식염을 서로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소금을 말하며, 꽃소금으로 불리는 재제소금은 천일염을 깨끗한 물에 녹여 불순물을 걸러낸 뒤 다시 가열하여 결정시켜 생산한 소금을 말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식품 등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식품의 유형), 원재료, 성분 등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불법 소금 제조·유통·판매 행위를 하는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



정이며, "천일염 등 원산지 허위표시" 등과 관련하여 "소금 가격과 수급의 안정화 및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경북교육청, 제60회 경상북도학생체육대회 성황리에 종료

문경시민운동장 및 도내 11개 시군 24개 종목별 경기장

임종식 교육감, "이번에 발굴된 우수선수들이 체계적·과학적 훈련을 통해 훌륭한 체육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꿈과 열정·희망을 주는 대회로 발전"

경북교육청은 지난 27일(금)부터 29일(일)까지 3일간, 문경시민운동장과 도내 11개 시·군 24개 종목별 경기장에서 진행된 '제60회 경상북도학생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31일(화) 밝혔다.

경북교육청이 주최하고 경상북도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체육영재 조기 발굴과 학교체육 활성화 및 학생들의 애학심과 애교심을 고취하기 위해 각 시·군을 대표하는 초·중·고등학생 대표 3,200여 명과 임원 3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육상경기는 평소 갖고 있던 개인 기량을 발휘하는 대회인 동시에 교육지원청별 순위를 가리는 대회로 포항교육지원청(총점 158점)이 지난해에 이어 3연패를 달성했으며, 구미(총점 150.5점)와

칠곡(총점 117점)이 뒤를 이었다.

또한 구미 인덕중학교 2학년 손창현 선수가 21년 만에 원반던지기(기록: 59.63m)에서 신기록을 수립하는 등 육상경기대회에서 10개의 대회 신기록이 쏟아졌다.

육상 여중부 고령 다산중 기영남 선수와 육상 남중부 경산 암양중 서예준 선수는 100m, 200m에서 두 종목 모두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며 나란히 2관왕을 달성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학생체육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선수들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통해 훌륭한 체육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꿈과 열정 그리고 희망을 주는 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한중 국제교류 협약 체결, 글로벌 청송초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청송초, 중국 강소성 숙천시 실험학교와 우호 교류 협약 체결

허영희 교장, "이번 우호 교류 협약 체결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확충 및 올바른 세계관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혀

청송초등학교는 지난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중국 강소성 숙천시 실험학교를 방문해 청송초-실험학교 우호 교류 협약 체결, 우호 교류 문예 공연 관람 및 숙천시의 여러 명승지 등을 견학하였다.

허영희 교장은 숙천시 도착 둘째 날인 10월 24일, 숙천시 실험학교의 국제교류센터에서 장군 교장과 면담하고, 차년도 대면교류 추진을 위한 교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부터 10월 26일까지 우호 교류학교 문예 공연 및 가을운동회 개막식 관람, 양하 송공장 문

화관광지구, 우각마을 전원 휴양지, 용운성, 건륭황제행궁, 향우고거, 숙천시 박물관 및 삼대산삼림공원 견학을 통해 숙천시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허영희 교장은 "이번 우호 교류 협약 체결을 통해, 앞으로 우리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확충 및 올바른 세계관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외국 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화 시대에 맞는 감각 및 국제적 시각을 넓힐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교육결손 해소 학교현장지원단 방문형 컨설팅 운영

교육결손 해소 지원을 위한 2학기 현장 지원 컨설팅 실시



경북교육청은 지난 31일(화)부터 11월 24일(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심리·정서·사회성 회복 지원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결손 해소 지원 사업 운영 36교를 대상으로 학교현장지원단의 컨설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지원 컨설팅은 교육결손 해소 사업 계획과 운영 내용, 사업 전반의 효과성을 검토해 사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결손 해소 학교현장지원단'은 교

육결손 해소와 기초학력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33명으로 구성해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과 우수 사례 발굴, 관련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한다.

컨설팅 내용은 ▲운영 프로그램 기획 및 성과관리 ▲사업 홍보 및 가정과 연계 방안 ▲올바른 예산 사용 방안 ▲우수 사례 관리 및 맞춤형 지원 등이다.

컨설팅 기간 동안 학교현장지원단은 사업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발생

하는 어려움과 현안 과제를 지원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유도해 갈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컨설팅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교육 결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은 중식되었지만, 학생들의 학습결손 해소와 더불어 심리·정서 회복 등을 위한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활동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부산교육청, Book적Book적 북튜버 한마당 공모전

함께 읽고 나누는 독서문화 확산과 인문학적 소양 키우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부산지역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2023 Book적Book적 북튜버 한마당'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독서 활동 콘텐츠 제작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 흥미도를 높이고, 이를 공유하며 함께 읽고 나누는 독서문화 확산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공모전은 '책 속 세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기억에 남는 장면 표현하기', '책을 소개하고 생각이나 느낀 점 말하기' 등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인터뷰, 역할극, 광고, 애니메이션 등 저작권을 준수한 3분 내외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제출하면 된다.

부산지역 학생과 교원이면 누구나 참

여할 수 있고, 개인·모듬·동아리·학급 등 참가 형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공문으로 안내한 이메일(warm@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작품은 검토·보완 과정을 거쳐 11월 넷째 주부터 'Book적Book적 북튜버 한마당' 유튜브 채널에 탑재한다. 참가자에게는 도서상품권을 나눠줄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공모전은 학생들에게 독서를 통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해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2023 호명교육가족 한마음 걷기 데이

꿈 사랑이 가득한 행복 호명교육

호명초등학교는 지난 28일(토) 10:00~12:00, 경북도청 천년숲에서 본교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2023 호명교육가족 한마음 걷기 데이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2023학년도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북도청 천년숲에서 가족과 함께 걷기를 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약 270명이 참여한 이 행사에서 호명교육가족들은 천년숲 둘레길 걷기, 가족 미션 해결하기, 보물 찾기 등의 활동

에 참여하였다. 걷기 데이 행사에 참여한 이○○ 학생은 "보물을 찾으면서 천년숲을 걸으니 기분이 좋았어요."라고 하였다. 학부모 김○○님은 "가족과 나와서 걸으니 힐링도 되고 선물도 받아서 즐거웠어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호명초등학교 강성만 교장은 "이번 한마음 걷기 데이를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이 향상되고 서로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가족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다."고 전했다.

정금자/기자



'2023 도전! 체력왕 선발대회 실시' 해달피 체력왕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은 지난 달 30일(월), 영양국민체육센터 내 다목적 체육관에서 관내 초·중·고학생 78명을 대상으로 2023 도전! 체력왕 선발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대회는 신체활동이 부족한 학생들의 신체 활동 욕구를 깨우고 학생들의 흥미에 맞는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건강 체력 향상을 위해 계획을 세워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회 종목으로는 악력, 제자리멀리뛰기,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학생건강체력평

가(PAPS) 3종 경기와 경북형 특화 체력 종목인 순환도전(반복엎뛰기, 버피점프, 20m왕복 달리기) 경기로 치러졌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각 학교에서 체력왕으로 선발되어 출전한 학생들로서 또래 친구 및 선·후배들과 경쟁당당하게 체력을 겨루고 우정을 다지며 화합하는 시간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르는 기회를 가졌다.

김유희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를 발전시켜 자기주도적인 체력 증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

회가 되기를 바란다.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기록으로 최종 선발된 선수들은 오는 11월 4일(토) 포항 만인당에서 펼쳐질 2023 경북 학교체육 한마당 행사에 영양 대표 체력왕으로 출전하게 된다. 2023 경북 학교체육 한마당은 경북 체력왕 선발대회 및 다양한 스포츠 체험 부스와 학교급식 박람회, 학교보건 한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칠곡교육지원청,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최원아 교육장,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 직원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실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혀

칠곡교육지원청은 지난 달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칠곡교육지원청 소속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각종 재난

과 같은 현장 훈련과 토론 훈련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세부적으로는 ▲11월 2일 왜관 119안전센터, 칠곡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지진, 화재대피 훈련 및 심폐소생술 교육 ▲11월 3일 교육시설 지진발생에 따른 수습 방안 토론훈련 등 재난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훈련이 진행된다.

김동현/기자



참가기간	2023. 11. 1(수)~11. 10(금)	주최/주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총괄) / 영양교육지원청 (주관)
참가대상	본청소속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누구나 가능 (단, 다문화가족 학생은 별도 신청 필요)	모집분야	2023 Book적Book적 북튜버 한마당 공모전
제출방법	영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신청기간	11월 10일(금) 오후 5시까지
응답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심사기간	11월 11일(토)~11월 17일(금)
응답처	영양교육지원청 (영양초등학교)	대상자	최종 선발된 북튜버 10명
문의처	영양교육지원청 (영양초등학교)	문의사항	영양교육지원청 (영양초등학교)

경남도,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김제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역량 집중

경남도 전시관, '경남, 남해안을 넘어 우주까지' 주제, 민선8기 주요 성과 및 정책 홍보

중설투자 지원요건 완화, 대규모 물류, 도·소매업 지원근거 마련

경상남도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되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in 대전'에 참가해 도 발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도정 비전과 주요 관광지 등을 소개하기 위한 경상남도 전시관을 운영한다.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 등 윤석열 정부의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이 본격 추진됨과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방시대위원회 주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엑스포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을 비롯하여 지방시대존, 각 시·도의 주요정책과 미래비전을 홍보하는 전시회, 일반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경남도는 지방시대 엑스포 기간동안의 우수정책과 주요 관광지를 알리기 위해 경상남도 전시관 및 경남혁신도시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경남도 전시관에서는 '경남, 남해안을 넘어 우주까지'라는 주제로 우주항공청 개청과 남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의 미래비전에 대한 희망과



남해안 바다의 반짝임을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한지와 미래필름을 활용한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전면에는 대형 LED화면을 통해 도정비전과 주요정책, 관광지 홍보를 위한 영상을 재생한다.

관람객들에게는 경남도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우, 경남 OX퀴즈 이벤트를 진행하여 소정의 관광기념품을 제공하고, 우주발사체 모형 만

들기, 고려대장경판 탁본 체험 등을 통해 경남에 대한 관심을 도모하고 경상남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엑스포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진주, 밀양, 통영, 남해, 산청 5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여 주요 정책과 관광지를 홍보하고, 각 시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우 이벤트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참

여 시군의 주요 관광지 영상을 엑스포 기간 내 상영한다.

한편, 경남도는 혁신도시 내 기업 대상으로 입주기업 임차료 지원사업, 창업 3년 이상 기업 대상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조기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 있으며, 올해 9월 말까지 521개 기업이 입주하는 등 기업친화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혁신도시 투자유치 홍보부스'에서는 입주기업 지원시책과 입주환경을 홍보하고, 혁신도시의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홍보부스에서는 우주항공, 건설, 에너지, 세라믹, 승강기, 방위산업 관련 기업인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상담을 진행한다.

김정규 경남도 균형발전국장장은 "이번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경남도는 지역 주도 지방시대 개막에 걸맞은 도의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청 개청 의지를 설명하고, 향후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중점을 두었다"며 "경남도의 정책비전과 균형발전에 대한 메시지를 충분히 표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재현/기자

김제시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조례안이 지난 10월 24일 제273회 김제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1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기존부지 증설투자 지원요건 완화(300억 원 이상 투자 및 100명 이상 고용을 200억 원 이상 투자 또는 20명 이상 신규고용) △대규모 물류, 도·소매업 투자유치 지원근거(500억 원 이상 투자 또는 50명 이상 신규고용시 지원) 신설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외국인투자기업, 국내기업)해 우수기업의 유치 및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범위를 기금조성액의 5배(500억 원)에서 7배(420억 원)로 확대하여 대출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처한 관내 영세한 중소기업 다수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청년기업, 여성기업 및 김제시장의 표창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차보전을 기존 4%에서 최대 5%까지 우대하는 등 관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의 협동조합 조직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김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경영, 기술 등 각종 지원, △물품 및 용역 조달 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공동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이 우수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경제상황,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경주시, 2024년 낙동강수계 특별지원사업 선정 쾌거

2027년까지 산내 원두숲 생태공원을 매개로 주민상생형 환경아카데미 조성에 100억 투자

경주시가 환경부의 '2024년 낙동강수계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주민과 상생하는 경주 낙동강환경아카데미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경주 낙동강환경아카데미 조성사업'은 기금 60억과 시비 40억을 포함한 총 100억을 투자하여 내년부터 2027년까지 청정도시 산내면 원두숲 생태공원을 거점으로 10,951㎡ 부지에 환경전시체험관, 환경학습관, 생태연못, 경주상징 조형물, 무동력어린이놀이터, 친환경야간경관시설 등 다양한 생태교육·체험공간, 생태놀이공간을 조성한다.

낙동강수계 특별지원사업은 경북, 경남 등 낙동강수계의 2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수원 및 댐 주변지역 수질개선 및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사업을 지자체 공모로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주민과 상생하는 경주 낙동강환경아카데미 조성사업'이란 주제로 응모

해 사업부지가 시유지로 개발용이성, 조성·운영계획의 전문성 및 확장성, 동창천의 우수생태 자원을 활용한 학습·체험 잠재력, 성과 도출 가능한 경주만의 특화 전략 및 강점들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으로 공모에 선정됐다.

아울러 사업부지 반경 10km 이내 청룡폭포, 동창천 생태자원, 단석산 국립공원·신선사마애불상군, 화랑의 언덕, OK그린청소년수련관, 친환경식물영양센터 등 힐링과 문화관광을 연계한 '경주 특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경주시 전역을 환경교육의 장으로 확장하고, 방문객 체류시간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신축하는 환경교육시설 내부에는 경주만의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이 담긴 환경체험형 전시물을 도입하여 내실 있는 환경교육을 수행하고, 카페·특산품판매장 운영 등으로 주민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부에는 생태연못(정화의 숲), 경주상징 조형물(포석정)을 설치하여 방문객과 주민들에게 이색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 방문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그물 슬라이드, 모래놀이터 등 무동력어린이놀이터도 조성한다.

이외에도 다목적실, 씨앗도서관, 기획전시실, 일일체험공방 등 초중학교, 단체의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 거점교육센터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산내면에 원두숲 생태공원을 배경으로 동창천, 단석산 국립공원 등 산내면이 가진 유무형의 자원을 교육으로 특화하고 경주만의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탄소제로시대에 부응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관산학이 협업하여 경주 낙동강

환경아카데미 조성사업이 신환경 롤모델이 되도록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윤태용/기자



목포시 공고 제2023 - 1723호

『목포시 서산·온금 재정부축진지구 기반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분묘 개장 공고 (2차)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서산온금 재정부축진지구 기반시설 설치공사』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본 공고 기간 중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임의로 개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1월 1일

목 포 시 장

1. 분묘의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온금동 194-4번지 내
2. 분묘 기수 : 분묘 1기
3. 개장사유 : 「목포시 서산온금 재개발축진지구 기반시설 설치공사」 사업지구 내 분묘
4. 공고기간 : 2023. 11. 1. ~ 2023. 12. 26. (55일)
5.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련법에 따라 임의 개장
 - 다. 기 타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 또는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같음함
6.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가. 장 소 : 납골당 (※ 미정)
 - 나. 기 간 : 화장 납골당 10년 안치
7. 신고 및 연락처 : 목포시청 도시문화재과 도심개발팀 (☎ 061-270-8394)

광명시 주말 ESG 창업스쿨, 직장인에게 큰 호응 얻어

4주간 창업의 A부터 Z까지 집중 교육



광명시 주말 ESG 창업스쿨이 창업을 꿈꾸는 직장인과 대학생 등 50여 명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시작한 광명 ESG 창업스쿨은 ▲창업 자금조달 로드맵 ▲ESG 창업 시장 이해와 분석 ▲브랜드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스타트업 투자 기업 실무 사례 ▲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 피칭 등 실전 내용을 4주간 집중적으로 다룬다.

수업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주중에는 직장 업무로 시간적 제약이 많았는데 주말에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라며 "향후 ESG 창업스쿨을 통해 배운 지식을 실전에 적용하여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소

감을 전했다.

4주간의 여정을 마친 수료자에게는 '광명시 ESG 창업오디션' 가점 부여 등 특전도 제공된다.

광명시는 예비 창업자에게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성장을 독려하여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광명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통해 스마트 기동 거꾸집 제조업체 품이즈(대표 엄혜경)등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창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적극 지원한 바 있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어오고 있다. 2018년부터 124개의 창업기업에 자금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꾸준히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 실적을 조사한 결과 약 83%의 기업이 사업장을 유지하며 138명을 고용하고 290억 원의 매출 성과를 거두는 등 스타트업 동반성장 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왔다.

윤용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대표축제



제17회
청송사과축제

2023. 11. 1.(수) ~ 11. 5.(일)
청송읍 용전천 현비암 일원

주최 / 주관 청송군 / 청송군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경상북도, 청송군의회, 청송경찰서, 청송소방서, 청송교육지원청,
 청송군관내농협, (사)청송사과협회, K-water 청송권지사, 한국수력원자력청송양수발전소, 청송문화원 등